2019 평화문화진지 아카이빙프로젝트 기록이 현재를 만든다

Peace Culture Bunker

2019 평화문화진지 아카이빙프로젝트

Peace Culture Bunker

기록이 현재를 만든다

2020.04.03.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화문화진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마들로 932 Tel 02) 3494-1970 평화문화진지 남경순 아카이빙프로젝트북 기획·편집 김수진, 남경순 글·인터뷰 김수진, 남경순 김선주, 김우태, 김은미, 오승규, 이남숙, 이영종, 장지남, 최종도, 송창현, 코어건축사무소(김빈, 유종수) ㈜코어건축사무소, 평화문화진지, 시민추진단 외 기억수집소 김민정 오픈포럼 안석희, 김은미, 남경순, 이남숙, 이인규 참여작가 김진, 남경순, 오제성, 정혜령 얄라스튜디오 백호현 문덕인쇄(주)

Peace Culture
 Bunker
 2019 평화문화진지 아카이빙프로젝트

 기록이 현재를 만든다

| 2019 도봉협치포럼 플레이플레이피스 사업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글의 저작권과 사진에 대한 초상권은 해당 기관 및 각 인물에 있으며,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화문화진지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어릴 적 지금의 창포원 자리에는 금성스케이트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도봉구(지금의 노원구, 강북구 포함)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스케이트를 타러 이곳에 온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스케이트장 너머로 보이는 시민 아파트는 접근하기에 조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아파트 1층이 군사시설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곳에 북한군의 침입을 막기 위한 전차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아파트가 철거되고 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평화문화진지는 한국전쟁의 아픈 기억과 상흔이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쟁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남아 있습니다. 평화문화진지는 이제 전쟁의 상흔을 넘어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생태적인 삶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19년 평화문화진지는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통해 앞으로 평화문화진지의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소중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작은 걸음이 평화문화진지가 지역 주민, 나아가 서울 시민들과 함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시간을 위한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평화문화진지 김용현 센터장

2019 평화문화진지아카이빙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2019년 평화문화진지아카이빙 프로젝트>는 1970년 도봉시민아파트의 기억을 수집하여 평화문화진지를 새롭게 읽어보려는 소박한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프로젝트는 도봉협치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 평화문화진지아카이빙 프로젝트>로 제 모양을 갖추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획한 것을 충분히 진행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미처 다 보여드리지 못한 자료들, 사람들, 실패를 통한 대안들은 다음 걸음을 위한 그자체로도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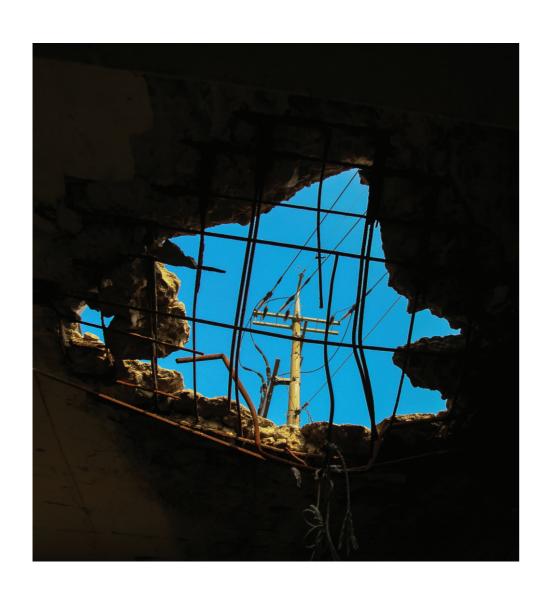
이 책은 <2019년 평화문화진지아카이빙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일련의 시도들을 담은 프로젝트북에 가깝다. 특히, 대전차방호시설(군인아파트), 시민아파트를 기억하는 주민, 마을활동가, 구청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글로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데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 더불어 4명의 작가들이 평화문화진지 공간을 주제로 작업한 <도봉구 도봉동 7-4> 전시 도록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작품을 통해 작가들이 느낀 평화문화진지와 작품의 의미, 바람 등을 함께 담으며 평화문화진지가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풍성하게 읽히기를 바랐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기억수집소>와 오픈포럼의 내용도 간단히 담았다. <기억수집소> 설치는 아카이 빙 과정에서 과거를 넘어 '지금-시간(now-time)'의 동시대성을 담으려는 시도였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평화문 화진지를 방문한 사람들의 일상적이고 순간적인 기억들을 모으고자 했다.

오픈포럼 <기억이 현재를 만든다>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평화문화진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주민, 예술가, 관계자들이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와 방법, 앞으로의 계획을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자리였다.

책의 마지막에는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을 지켜본 안석희 선생님과 재개발을 앞두고 둔촌주공아파트의 추억을 기록한 이인규 작가의 <안녕, 둔촌주공아파트>의 사례가 실려있다. 사라져 가는 것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 그 과정의 변화를 통해 평화문화진지의 다가올 시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을 지켜보며 조언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던 안석희 선생님을 비롯하여 안근 철 작가, 협치도봉, 도봉구청 공무원, 주민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 책이 앞으로도 평화문화진지를 찾는 사람들과 공간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낼 의미에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CONTENTS

I	평화문화진지의 시간	8
	파쉬모취되지야 기어	
I	평화문화진지의 기억	
	인터뷰1 _ 소설 같은 이야기, 도봉시민아파트 사람들	30
	인터뷰2 _ 거의 다 와요. 오늘도 뭔가 하는 것 같던데?	36
	인터뷰3 _ 소재지와 토지, 건출물 소유주가 모든 다른 평화문화진지	44
	인터뷰4 _ 여기 중정이 있는 공간을 좋아해요. 인터뷰5 과거의 흔적이 현재가 되기까지	50 58
	인터뷰6 '와, 아파트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기 사는 친구가 위대해 보였죠.	62
	인터뷰7 과거와 현재를 잇는 축	70
	인터뷰8 '평화'라는 말에 너무 갇혀있지 않았으면 해요.	78
	인터뷰9 도봉구 토박이 정책특보가 전하는 평화문화진지의 숨은 뒷이야기	86
	인터뷰10 시민아파트,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92
I	부대 프로그램	
	기억수집소 _ 손에 손잡고 & 소리보물상자	98
	오픈포럼 _ 기록이 현재를 만든다	103
ı	평화문화진지의 생각	
	우리가 함께 남긴 기록과 기억	114
	전쟁과 분단에서 평화와 문화로!	118
	평화문화진지에 대한 바람	120
	2010 편하므하지지 아카이비표근제트를 도아버다	122









조선시대

조선의 그린벨트와 사림의 성지, 그리고 다락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은 조선시대 한성부의 관할 구역인 성저십리(城底十里)와 그 이웃인 양주목(楊州牧)에 속해 있었다. 성저십리란 도성 바깥 10리(약 3.93km)에 속한 지역으로, 왕실묘역이나 사대문 문중묘역이 형성되어 나무를 베거나 무덤 쓰는 것을 금지하는 사산금표(四山禁標)가 있는 지역이었다.

조선시대 평화문화진지 일대의 대표적인 명소는 도봉서원과 다락원이었다. 도봉서원은 선조 때 사림정치가 본격화되면서 건립된 초창기 서원으로 조선후기까지도 집권 노론세력의 상징이었을 만큼 위상이 대단했다. 이 일대의 뛰어난 풍광은 겸재 정선(1676~1759)의 「도봉추색도」와 심사정(沈師正, 1707~1769)의 「도봉서원도」, 바위 위에 새긴 송시열의 한시 <제일동천(第一洞天)>과 같은 작품으로도 남아있다.



심사정(沈師正),「도봉서원도(道峰書院圖)」, 건국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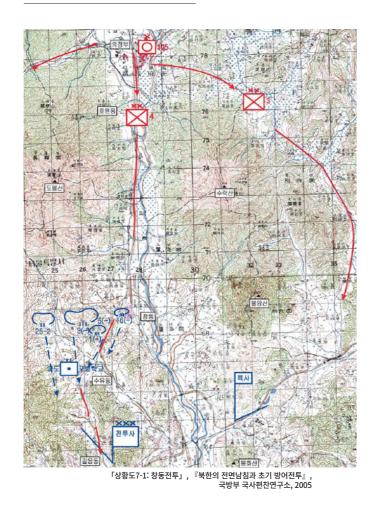
『여지도(輿地圖)』 중 양주(楊州),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또한 조선시대에는 공무로 여행하는 관리나 일반인에게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에 원(院)을 설치했는데 그중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누원(樓院-우리말로 '다락원'이라 한다.)은 조선 후기 물류 유통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양주 누원, 즉 평화문화진지 자리에 있던 다락원은 한양의 북방로를 지키는 군사적 관문인 동시에 양주 방면으로 임금이 행행하거나 관원이 이동할 때의 관문으로 기능했다. 초기의 다락원이 여관 기능에 충실했다면 후기에 이르러서는 북쪽에서 유입되는 물산 유통의 집산지, 외침을 막고 화적을 검문하는 관방 역할로 점차 그 기능이 확장되었다. 오늘날 평화문화진지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도성의 북쪽 관문이자 문화의 중심지였다.

17

한국전쟁시대

서울로 진입하는 북방 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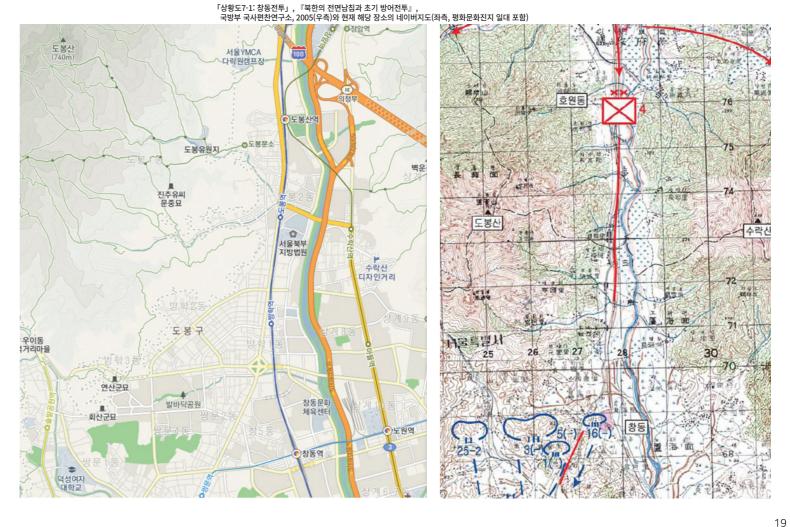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도선 전 지역에 걸쳐 일제히 북한군의 기습 포격이 개시되었다. 남북을 70년 가까 이 나뉘게 한 비극의 서막이었다. 당시 북한군은 전차를 앞세운 기갑전력이 압도적 우위에 있었다. 서울을 목표 로 정한 북한군은 철저한 계획 아래 38도선 전역에서 지상 공격을 감행했고, 현재의 평화문화진지 자리가 위치한 의정부-창동 방어선을 21시간 만에 돌파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창동-미아리전투는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북한군과 서울 점령을 둘러싸고 벌어진 전투였다. 오늘날 평화문화 진지가 있던 도봉산자락은 원산-서울을 잇는 3번 도로가 남북으로 뻗어있어 북한이 전차로 남침할 수 있는 주요 한 길목이었다. 당시 작전지역은 동쪽으로 수락산과 불암산, 서쪽으로는 도봉산과 북한산, 남쪽 끝은 북악산에 잇닿아 있었다. 동서 양쪽으로 이 고지를 잘 방어한다면 적의 보병과 전차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충 지였으나 이곳을 점령당할 경우에는 전선이 한강 이남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지세이기도 했다.

북한은 막강한 전차부대를 앞세워 맹렬하게 공격해왔고, 지휘와 보급

체계를 비롯해 여러 면에서 열세였던 국군의 의정부-창동 방어선은 붕괴되어 계속 남쪽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수도권과 북쪽을 잇 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 순식간에 침략의 지름길로 바뀐 것이다. 기습 이었다고는 하지만 서울 북방 관문의 취약함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 었고, 민족 상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침략의 관문이었던 이곳은 이후 길을 단절하기 위한 길목이 되었다.



산업화시대

체제 경쟁과 경제 발전의 시대상

1968년, 북한 무장간첩단이 대통령 암살을 목표로 청와대 인근까지 침투한 '김신조 사건'이 벌어졌고, 정부는 수도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서울 요새화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 따라 1970년, 유사시 건물 자체를 폭파해 탱크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대전차방호시설이 들어서게 되었다. 대전차방호시설은 일반군사시설과 달리군인들이 상시 거주하며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1층은 공격과 방어 및 대피소나참호 역할이 가능한 군사시설, 2층부터 4층까지는 180세대를 아우르는 규모의 아파트 형태였다.



옛 도봉동 시민아파트 (1999, 문화도시 문화복지)

'불도저 시장' 김현옥 서울시장의 주도 하에 서울 곳곳에 세워진 '시민아파트'는 군사주도 대규모 도시개발 정책의 산물이었다.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서울로 인구가 몰리며 주택난이 불거지자 저소득층에게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목적이었다. 단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짓다보니 1970년 와우시민아파트 붕괴 참사 같은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시민아파트 건립 사업은 오늘날 서울을 있게 한 도시계획이었고, 이후 한국인의 주거형태를 '아파트'로 바꾸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철거 전 사진(2003)

군사시설과 접목한 이 아파트는 도봉구 최초의 시민아파트였으며, 초기에는 인근 군부대 장교나 하사관들의 관사로 사용되다 70년대 후반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일반에 분양되었다. 1990년대 후반 건물 노후 화로 인해 철거가 결정되었고, 2003년에 아파트는 최종 철거되고 1층 군사시설은 역사성과 장소성을 인정받아 존치되었다. 방공호 위의 주거지였던 도봉시민아파트는 남북 분단의 역사, 국가안보를 무엇보다 중시하던 군부통치 시절을 가감 없이 보여준 문화사적 유적이었다.

평화문화진지

개발에서 재생으로, 분쟁에서 평화로

2층에서 4층까지 활용되던 시민아파트 철거 이후 1층의 대전차방호시설은 10년 이상 그 쓰임새를 찾지 못하고 방치되었다. 그로 인해 주변지역이 슬럼화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흉물이라는 비판도 많았다. 2014년 7월 민 간과 행정의 협력을 통해 공간재생을 합의했고, 2016년 12월 서울시-도봉구청-60보병사단이 대전차방호시설리모델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제 이곳은 예술창작자와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대전차방호시설이 공간성을 그대로 기억하고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의미를 담아내는 문화예술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8 평화광장

9 지하연결통로 10 전망대

11 베를린장벽 12 중정 8 PEACE PLAZA 9 UNDERGROUND PASSAGE

10 OBSERVATORY 11 BERLIN W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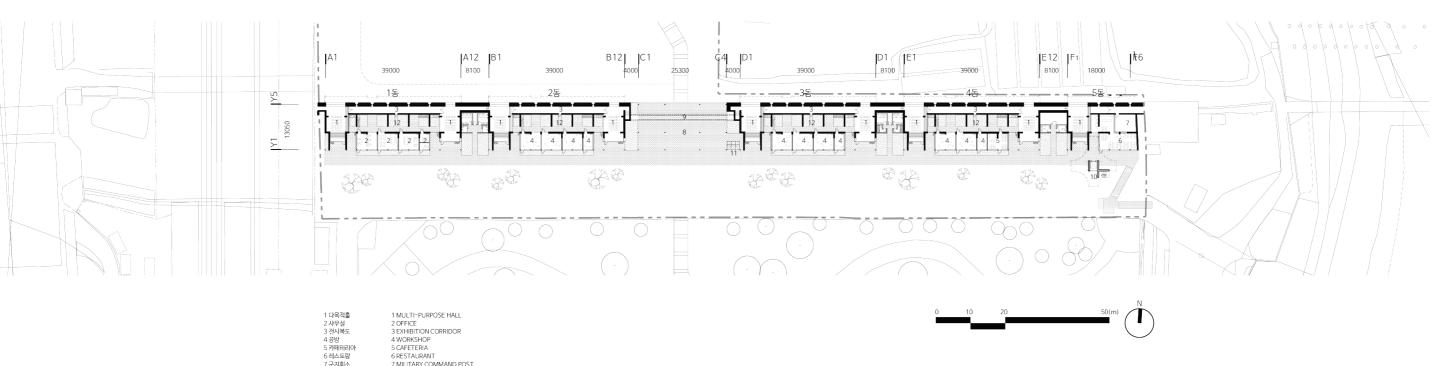
12 COURTYARD

평화문화진지 도면 _ ㈜코어건축사무소

평화문화진지는 동쪽으로 수락산과 중랑천을, 서쪽으로 도봉산을 마주하고 있다. 남쪽에는 국립창포원, 북쪽에는 동북권 체육공원이 위치해 있다. 건물은 단층으로 전체 5개동이 일렬로 늘어서 각 동이 내부통로로 연결된, 길이 250미터에 이르는 단일 건축물이다. 옛 대전차작전공간의 흔적이 남은 북쪽 벽에서는 총구와 포신을 내놓는 작은 창들, 전차의 위치를 표기한 숫자나 기호를 발견할 수도 있다. 1동에는 공연장이, 2동에서 4동까지는 예술가와 시민들을 위한 공방과 전시실, 강의실을 비롯한 커뮤니티 공간이 있다. 2동과 3동 사이 베를린장벽이 전시된 평화광장과 잔디마당은 축제와 장터를 위한 장이며, 5동 앞에 신설된 전망대에서는 주변 공원과 자연환경을 조망하기 좋다.

특히 기존 군사시설과 신축 시민 공간 사이에 난 중정은 동서남북이 교차하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평화문화 진지만의 시공간적 상상력이 피어나는 공간이다.

조선시대부터 한국전쟁시대, 산업화시대를 거쳐 변화하는 서울의 시대상을 드러냈던 바로 이 공간은 대결과 분단의 상징에서 문화와 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더 이상 전쟁과 침략이 아닌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곳으로서 이제 평화문화진지는 역사와 시민 참여, 문화와 예술이 한데 어울리는 새로운 도시재생의 미래상을 보여주고있다. 전쟁으로 끊어졌던 길을 평화로 잇고, 문화를 토양으로 예술가와 시민들이 이어지는 새로운 길. 길은 소통이며, 소통은 이해이며, 이해는 평화이기 때문이다.









소설 같은 이야기, 도봉시민아파트 사람들

국가안보주의와 재개발로 얼룩진 시대 웃픈 시민들의 따뜻하고 소박한 삶의 풍경

오승규 과장(도봉구청 민원여권과, 현 퇴직)은 2002년 도봉구청 주택과에 근무하며 철거를 앞둔 도봉시민아파트 주민들의 보상업무를 담당했다. 오랜 기간 도봉구에 거주해온 주민이 기도 했던 오승규 과장을 통해 당시 사회상과 시민아파트에 거주했던 주민들의 생생한 삶을 들어볼 수 있었다. 2019년 12월, 오승규 과장은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글은 인터뷰에서 언급된 당시 사회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하여, 1인칭 화자의 시점으로 재편집했다.



김신조 사건과 국가안보 우선주의

시민아파트는 1968년 1·21 사태¹⁾에서 시작됐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당시 나는 12살이었지만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김신조 사건으로 더 유명한 1·21 사태는 북한 124부대 소속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다. 이후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관계는 최고조에 이르렀고,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안보 우선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향토예비군과 육군3사관학교를 창설하고 교련교육 등을 실시했다.

지금의 평화문화진지 자리에 대전차방호시설²⁾이 세워진 시기도 이쯤이다.(1969년) 왼쪽에는 도봉산, 오른쪽에는 수락산과 중랑천이 있어 북한군이 남하하기 위해서는 지나갈 수밖에 없는 지형이다. 대전차방호시설은 이 시기 서울경계강화를목적으로 지어졌는데 1층은 벙커, 2층에서 4층까지는 아파트였다. 사람이 사는 집으로 보이기 위한 일종의 위장술이었다. 처음에는 군인들의 관사로 사용되어 '군인아파트'로 불렸지만, 실제 군인들이 거주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

서울 최북단에 위치한 도봉구는 행정구역상 양주군에 속했던 지역이다. 이후 서울 시에 편입되어 성북구 관할 하에 있다가 1973년 미아동, 번동, 수유동 등이 분리되어 도봉구가 신설됐다. 내가 도봉구에 정착한 것은 1978년이었는데, 당시에는 미아삼거리에 살았다. 땅값이 저렴해서였는지 동네 곳곳에 석재, 새시, 벽돌공장이많았다. 도봉구는 이후에도 행정구역의 변화가 많았는데 1988년에는 도봉동, 상계동, 하계동을 포함한 지역이 노원구로 분할되었고, 1995년에는 미아동, 수유동, 번동 등이 강북구로 분리되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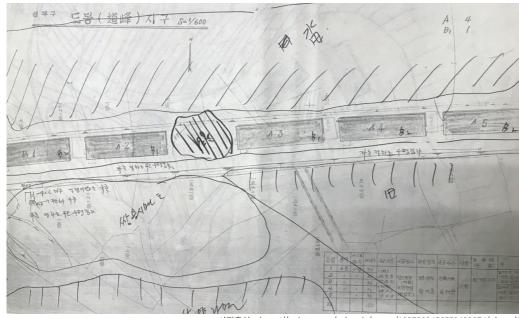
^{1) 1-21}사태 https://ko.wikipedia.org/wiki/1%C2%B721_%EC%82%AC%ED%83%9C

²⁾ 중요 군사 요충지 도로마다 설치된 벽 형태의 대전차 장애물. 보통 전차가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가파른 벽을 쌓아서 구축한다.

³⁾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31111010007#csidx35801a1c1d6ecf1aef78ab9c9b5c4a9

무허가 주택... 시민아파트의 탄생

1970년대 초만 해도 아파트가 흔치 않았다. 당시 서울은 인구증가로 주택난을 겪 고 있었고 무허가 판자촌에 거주하는 도시민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도심 외곽의 이주 정착촌을 건설하거나 판자촌 주민에게 시민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을 펼쳤다. 서울시에 편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도봉구도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급하게 진행된 아파트 공사는 날림 공사,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4 대전차방호시설은 1972년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시민아파트로 불리기 시작했고 입주민도 일반 시민들로 점차 바뀌었다. 아파트는 한 집이 10~11평 정도 의 규모였다.



사진출처 _ https://twitter.com/salguajc/status/1027882456559439874/photo/1

2004년 1월 도봉시민아파트는 안전진단결과 E등급을 받아 철거가 확정됐다. 군사 보호구역이라 다른 시민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철거가 늦은 편이었다. 그 후로 12년간 방치된 채 시민들의 관심에서 잊혀갔다.

소설 같은 이야기, 도봉시민아파트 사람들

나는 시민아파트 철거가 확정된 이후 2002년 주택과로 발령받았다. 시민아파트 거주 민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보상과 이주 지원을 담당하는 업무였다. 모두가 어려워 하는 업무, 처음 담당직원이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다는 농담 아닌 농담을 들었던 터였 다. 2년간 주민들과 얼굴도 붉히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면서 이 과정을 함께했다. 지금 생각해도 소설 같은, 소설의 주인공 같은 분들이 많았다. 글재주만 있었다면 글로 남겨 두고 싶은 이야기들이었다.

도봉시민아파트는 36동 5개동 총 180가구가 살았는데, 실소유주 가운데 원주민은 10 가구 내외였고 대부분은 외지 사람이었다. 보상은 실소유주와 세입자로 나눠 진행되었 다. 세입자의 경우 서울시 주택공사에서 매달 이주 가능한 임대아파트를 알려주면, 주 민들이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대부분 노원구 월계동과 중계동, 그중에서도 은빛아파트 로 많이 갔다.

실소유자들은 송파 장지지구를 마음에 들어 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만 해도 딱지와 전매로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이 많았다. 하지만 딱지5)로 아파트를 구매 하더라도 실제로 입주해 사는 사람은 드물었다. 재건축이 확정되면 전매이로 이익을 챙 기고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른바 부동산투기가 횡행하던 시기였다. 당시 10평 규모의 주변 아파트 시세가 3200만원 정도였다. 요즘에는 딱지나 전매가 사라져서 이 런 풍토도 이때가 마지막이었지 않았나 싶다.

안타까운 것은 원주민 대부분이 새 주거지에 대한 이주권을 갖더라도 이주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다들 살고 있는 곳보다 더 나은 곳으로 가길 희망했지만 정작 이주권이 주어져도 돈이 부족해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가구당 가구원 수를 파악하는 일이었다. 가족 수에 따라 이주할 집의 평수가 달라졌는데 가구원이 3명이면 10평, 4명이 넘어가면 12평의 임대주택 이 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였다. 보통 늦은 밤 11시, 12시쯤에 집을 방문하곤 했다. 그 시간에만 정확한 가구원을 파악할 수 있었 기 때문이다. 벨을 누르면 자다 깬 눈으로 나오기도 하고, 속옷 차림으로 맞이하는 분들 도 있었다. 생활이 다 어려운 편이었다.

기억에 남은 가족들이 있다. 할머니와 아들, 손자가 함께 살았는데, 며느리가 집을 나가 고 없는 상태였다. 식구가 4명이 되어야 12평의 이주권을 받는데, 며느리가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들통 나니 할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오겠다며 사정을 했다. 그러다가 며 칠 뒤에 다시 방문하니 정말로 며느리가 와서 같이 살고 있었다. 집 나간 며느리를 찾아 준 셈이 됐다.

⁴⁾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eiloveu&logNo=220759855212

⁵⁾ 재개발 지역의 현지인들에게 주는 아파트 이주권을 속되게 이르는 말. 6)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바라고 되파는 것.

또 다른 집은 자매가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당시 재개발 대책위원장이 그 집에 대해 말하길, "주임님, 저년들이 딱해 죽겠어요. 한 명은 남편과 이혼하고 한 명은 사별했어요. 언니가 일을 하면, 동생이 4명의 아이를 돌보고 동생이 일하는 날은 언니가 아이들을 돌봐요. 저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해."

현실적으로 6명이 10평에서 살기가 어려웠다. 자매는 30대로 다소 젊어 보였는데, 알고보니 집을 구할 때 자매가 각자 조금씩 돈을 보탠 것이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자매가 따로 계약서를 받아오게 해서 언니와 동생에게 각각 10평짜리 임대주택 이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빈집도 늘어갔다. 아파트 주변 분위기도 어수선했다. 그쯤 해서 동네 고물장수들이 자주 아파트를 찾아왔는데, 밤마다 고물 장수가 와서 필요한 것을 가져갔던 모양이다. 남아있던 주민들은 민원을 넣으며 불평을 쏟아냈고, 경찰서에서도 항의 전화가 왔다. 하지만 온종일 지키고 있지 않는 한 해결할 방법은 없었다. 한편으로는 어차피 버릴 물건이라면 고물장수가 가져가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게 나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

마지막까지 합의를 하지 않아 고생했던 주민도 기억난다. 난항 끝에 보상협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주 지원비도 드리고 집 열쇠까지 반납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어느 날 철거업 체에서 전화가 왔다. 아직 이삿짐을 정리하지 않은 가구가 있다는 것이다. 확인하니 마지막까지 애를 먹이던 주민이었다. 어느 새 가져간 이삿짐을 도로 갖다 둔 모양이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뒤늦게 전화를 해온 주민도 있었다. 선한 부부로 기억하는데, 노원 구에 있는 은빛아파트로 이사를 갔었다. 성북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사 간집으로 초대를 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식사 초대가 참고마웠다. 바깥에서 먹는 비싼 음식이 아니라 집에서 직접 만들어준 음식이 진짜 아닌가. 맛있게 밥을 먹고, 직접 만든 케이크를 선물로 받았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지만그렇게 소소하게 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때였다.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 2년 정도 걸렸다. 주민실태조사부터 보상협의, 이주비 지급, 이사 가는 모습과 집 열쇠를 반납하는 과정까지 곁에서 지켜봤다. 당시 서울시의 도봉시민아파트 소유 지분이 32%, 나머지는 시민들이 분할상환을 하며 조금씩 아파트소유권을 가져가는 단계였는데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주민들이 다 못 갚고 있는 상태였다. 마지막 말소신고과정까지 마무리한 후에야 도봉시민아파트 업무를 마무리할 수있었다.

처음에는 구청에서 왔다고 하면 주민들이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데다 당시에는 나도 젊어서 거칠었을 것이다. 그나마 구청에서 나온 내겐 덜한 편이고 서울시에서 나온 공무원들에게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방문하면 주민들이 낫이나 호미를 들고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주대책이만족스럽지 않으니 그렇게 의사표현을 한 것 같다.

정부의 재개발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았던 시기였다. 아파트를 철거하면 그 자리에 새 보금자리를 지어주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군사시설이 었던 도봉시민아파트는 그러기 어려웠을 것이다. 주민들과 긴장 관계에 있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감사패도 받았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고생하며 보낸 시간의 정이었다. 이따금 평화문화진지를 지날 때면 그 시절 주민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사 가면 전화하겠다던 그 많은 주민들은 다들 잘 지내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다.



최종도 (80대)

어느 날 행사부스 앞에서 날마다 평화문화진지 를 산책하신다는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진지를 산책하는 최종도 님은 무려 반세기가 넘도록 도봉과 이 일대에 살아오셨고, 평화문화진지의 옛 기억을 간직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고 햇살이 따사롭던 가을날, <2019 서울평화문화축제>가 열리던 날, 여느 날처럼 진지를 산책하시는 최종도 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 동네에 살고 계신가요? 나는 1935년 대구에서 태어났고, 일제를 겪었어. 소학교 때 일본 선생한테 배우다가 2학년 되던 해 에 해방이 됐고, 중학교 들어갔을 때 6.25가 났지. 6.25 나고 10년 뒤에 이 동네로 왔으니까 그때부 터 한 60년 산 거지. 스물일곱에 결혼해서 이 건너 상계동에 집을 얻었어. 그래서 도봉, 노원 이 지역 은 잘 알지.

처음 오셨을 때 도봉은 어땠나요?

농촌이었고, 개발이 전혀 안돼 있었지. 특히 노원 저쪽은 배밭이나 논이었는데 지금 이렇게나 변한 거야.

여기 시민아파트가 생긴 것을 처음 보셨을 때,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높지 않은 4~5층 정도 되는 소감이 어떠셨어요?

집 위에다 집을 포개 지은 건물을 처음 보신 건물이었어. 근처에 비슷한 건물은 전혀 없었고, 이것만 딱 이렇게 생긴 집이었지. 우린 저 건너 기 와집에 살았는데 여기 오니 그렇게 해놨더라고. 처 음 보니 이상했지. 당시 동네 사람한테 이 건물에 대해 들었어. 군인 진지고, 군인 가족이 살고 있고, 방공호라고. 군인 가족이 산다는 말만 들었지 그 사람들 생활을 들여다보거나 얘길 나눠본 적은 없 었어. 가끔 중랑천에 물고기 잡으러 올 때 건물 정 도나 봤지.

당시 이 동네는 분위기는 어땠나요?

당시에는 여기 건물이 이것 하나뿐이고 주위에 다 른 게 전혀 없었어. 죄다 개천이고 밭이었지. 그땐 여기가 서울시가 아니라 양주군이었고, 여기서부 터가 의정부하고 경계선이었어.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정말 조용했어. 아무래도 군인들이 사는 지 역이다 보니 민간인과 접촉이 좀 적었던 것 같아.

지금은 창동에 사신다고 들었는데, 날마다 평 하루 서너 시간 산보삼아서 걸어다니는데 여기서 요?

화문화진지로 산책을 오는 이유가 있으신가 부터 수락산, 불암산, 삼육대학교 쪽 산길로 내려 가면 한 3시간 걸려. 여기 참 잘해놨어. 옛날 생각 도 나고. 옛날엔 안 이랬는데, 참 잘 만들어놨구나. 이동진 구청장 만나면 고맙다고 늘 칭찬해. 전에 여기서 축제하는 날 부침개를 팔길래 내가 부침개 도 하나 사줬어. 더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여기 진지에서 하는 행사에 자주 놀러오세요? 거의 다 와요. 오늘도 뭔가 하는 것 같던데?



당에 탱크도 전시돼 있잖아요. 전쟁을 겪은 분으로서 이렇게 전쟁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 게 해주는 것들을 보실 때 어떤 기분이 드세 요?

여기 전망대에서 근처 지형도 볼 수 있고, 마 많이 봤던 거라서 딱히 감흥은 없지. 열다섯 살 때 6.25를 겪었는데 그때 낙동강전투니 뭐니 직접 체 험을 했으니까 탱크 같은 것들은 늘상 봤던 것들이 야. 중공군이 소달구지로 포탄을 싣고 내려오는 것 도 봤어. 낙동강 전투 대비하는 걸 직접 목격했지. 중공군이 낙동강 주위에 포탄을 엄청나게 쌓아놨 는데 그때 유엔군이 거길 폭격해서 밤낮으로 포탄 터지는 소리가 났어. 전투가 끝나고 보니 죽은 사 람도 많고, 포탄에 맞아 죽은 사람의 창자가 담벼 락에 걸쳐 있기도 했어. 삐라도 날아다녔는데 거기 보니 흰 옷을 입고 나오면 살려주겠다고 해서 사람 들이 흰옷을 입고 나갔는데, 거기에 들입다 폭격을 해서 다 죽었어. 위장이라면서. 전쟁 때는 삐라가 많이 뿌려지는데, 거기 나오는 말들을 다 믿으면 안돼. 전쟁 때는 무조건 숨어서 살아남아야지 나갔 다간 죽는 거야. 내가 아주 크게 배웠어.

아... (긴 침묵) 전쟁을 책에서만 읽었는데 선 생님 말씀을 들으니 그 상황이 조금 더 생생 을 것 같아요.

전쟁에 대비해서, 탱크가 남침할 때 길목을 막으려고 지어진 건물이 시민아파트 시절 거 쳐서 낙후된 상태로 방치됐다가 문화예술공 간으로 되살아났는데요. 어찌 보면 참혹한 전 쟁의 기억이 있는 공간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 응하고 살아야겠지. 을 보시는 감회가 어떠세요?

옛날에는 이런 모습을 꿈에도 생각 못했지 뭐. 아 주 잘된 일이야. 그대로 방치해놨으면 지금까지도 **하게 느껴지네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 사람이 안 다니는 빈터였을 거야. 잘 해놔줘서 고 마워. 많이 좋아진 모습이 보기 좋아서 자주 와. 근 데 이렇게 발전하면서 주위 환경이 파괴되는 건 안 타까워. 옛날에는 저 중랑천에서 물고기도 잡아먹 었는데 지금은 그런 형편이 못되지. 옛날에 순수하 던 자연을 잃어서 안타깝지만 이것도 변화니까 순

개인적으로 진지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견문이 넓지 않은 사람이라 나는 그저 와서 보기만 해도 좋아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글쎄, 여기서 더 이상 할 게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마당에 탱크랑 전차 한 대씩 있는데, 저 외에 6.25 때 사용했던 병기들을 좀 더 전시했으면 좋 겠어. 후세 사람들도 전쟁의 역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전쟁 때문에 생겼던 이 공간에 '평화문화진 좋아. 모두가 바라겠지만 나도 평화가 빨리 왔음 좋 지'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겠어. 북한에도 맘껏 좀 다녀보고 싶어. 내가 우리나 라 최초로 크리스마스카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걸 팔려고 대한민국 땅 안 가본 데가 없어.

선생님이 크리스마스카드를 우리나라에서 처 음 만드신 분이라고요?

그렇지. 그때 카드는 인쇄기에 넣으면 나오는 요즘 방식이 아니라 실크 인쇄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고 송진가루를 뿌리고 불에다 구우면 톡 튀어나왔지. 을지로 인쇄골목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만 들었어. 바른손카드는 나보다 한참 후배고, 내 세 대에 카드를 만들던 분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어. 아무튼 그걸 영업하느라 30년 가까이 전국에 7천 군데 정도 거래처를 다녔어요. 서점이나 문방구 같 은 데 카드를 팔아달라고 갖다놓으면 정말이지 불 티나게 팔렸어. 엠보싱 같은 인쇄는 여름에 해놓 으면 떡이 돼놔서 찬바람이 나야 인쇄를 시작했어. 그러면 여직원들 6~70명이 손으로 그걸 접었지. 하여튼 그렇게 전국을 샅샅이 다녀봐서 어디를 가 든 익숙해요. 그게 습관이 돼놔서 지금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으면 그 이튿날 떠나. 북한 말고는 우리 나라 구석구석 안 가본 데가 없어.



1969. 방호시설 위로 지어져 있었던 시민아파트

은 분위기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이랑 교류가 잘 될 것 같 내가 금강산이랑 개성을 다녀왔어. 금강산에는 현 대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 3박4일간 다녀왔 고, 개성공단에는 시계 만드는 친척이 있어서 그 덕에 다녀왔지. 그때 절실히 느꼈어. 이 가까운 데 를 자유롭게 못 오가다니.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설령 통일까지는 안 된다 해도 좀 왔다갔다하면 좋 겠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남의 나라는 다 오가는데 북한만 못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 평화가 올 것 같 으면서도 참 안 오네. 잘 될 거 같으면서도 길이 막 히고, 다들 마음을 모아 어서 통일이 오도록 하면 좋겠어. 일본이나 중국 가듯이 자유롭게 오갈 수만 있어도 좋겠어.

북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신가요?

평양 대동강이랑 칠보산. 좀 더 올라간다면 함흥이 나 청진 쪽으로도 가고 싶지. 평양에서 점심 먹고, 사람들 사는 거 구경하고 싶어. 북에 친인척이 있 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동족이잖아. 만나면 얼 마나 반갑겠어. 금강산 갔을 때 구룡폭포 안내원이 참 다정하더라고. 성씨도 나랑 같은 최씨였어. 통 일이 되면 남쪽에 한 번 놀러오라고 했고, 그 아가 씨도 남한에 와보고 싶어 했어. 아주 진지하게 20 분쯤 이야기해봤는데 정말 우리랑 똑같더라고.

여기 창동에서 원산까지 가는 기찻길이 있다 고 들었어요.

맞아, 의정부 저 위로 다 연결돼있어. 내가 올해 85 세인데 한 해 사이에도 주위 사람들이 참 많이 죽 어나가. 나이든 사람들만이라도 좀 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좋겠어.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점점 더 좋아지 는 거 보셔야죠.

하하, 내가 건강한 이유는 낙천주의 때문이야. 돈 모아 부자되겠단 생각은 아예 없었고, 돈 없이도 그때그때 즐겁게 살자였어. 오늘 잘 살아야 내일도 잘 살지, 오늘 아껴서 내일 잘 살려다가 내일 죽을 지 어떻게 알겠어. 매 순간 즐겁게, 그래서 나는 지 금 유튜브 영화도 하고, 도봉구민회관에서 하는 연 극에도 출연해. 맘 같아서는 백세 넘게 살고 싶지 만 사람 일은 잘 몰라. 오늘 저녁 잘 먹고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 남은 날들 그저 정직하 게, 즐겁게 살다 가면 그뿐이지 뭐.

소재지와 토지, 건축물 소유주가 모두 다른 평화문화진지 민관학이 함께 만든 도시재생 공간으로 탄생

보안이 엄격했던 국방부와의 소통 인복이 많았던 베를린장벽 이송 과정

평화문화진지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이곳에 붙어있던 여러 이름이 떠올랐다. 다락원, 대전차방호시설, 군인아파트, 시민아파트, 그리고 평화문화 진지. 시절마다 공간의 목적과 이용했던 사람들이 다르고, 품고 있는 이야기도 다양했다.

우선, 평화문화진지의 시작을 함께한 사람들을 만나야 했다. 이남숙 팀장(도봉 구청 청렴인권팀)은 평화문화진지를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 사람 이었다. 평화문화진지 조성계획이 첫 발을 내딛을 때부터 공사허가가 날 때까 지 그 지난한 과정을 함께한 사람, 평화문화진지에 대한 그녀의 남다른 애정이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했다.

이남숙 팀장(도봉구청 청렴인권팀)

2013년 7월 문화관광과(현 문화체육과) 근무 서무업무 담당

2014년 8월 문화시설(대전차방호시설 포함) 담당

2015년 8월 ~ 12월 부서 내 업무 변경(문화공연, 문화누리사업 등 업무담당) 2016년 1월 ~ 2017. 7월 대전차방호시설 도시재생 사업 전담 등 문화정책 업무

평화문화진지

1969년 대전차방호시설 설치

1970년 아파트 증축

1972년 도봉시민아파트(서울시 인수)

2004년 안전등급 E등급 판정, 도봉시민아파트 철거

2014년 7월 시민추진단 결성(민간과 행정협력을 통한 공간 재생 합의)

2014년 9월 시민추진단, 서울시 시민정책박람회 참가

2016년 12월 서울시, 도봉구청, 60 보병사단, 군사시설 공동활용협약식 체결

2017년 10월 | 공사 완료



평화문화진지가 건립되기 전 주변 풍경

처음 시민아파트가 문화예술인을 위한 창작공간이 된다는 말을 듣고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대전차방호시설'이 무엇인지조차 몰랐거든요. 그래서 공간의 역사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용어 검색도 하고 서고에서 관련서류를 찾아봤어요. '시민아파트', '대전차방호시설'로 검색하니 나오지 않던 자료가 '보상'이라는 단어로 찾았더니 검색되더라고요. 자료를 통해 '시민아파트-1970년 4월, 5개동, 4층 180세대거주, 2004년 말소'라는 기록을 찾았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대전차방호시설은 군부대가 이전하고 시민아파트가 철거된 후 한동안 쓰임이 없었다. 간간이 구청에서 건설자재창고로 사용하는 정도였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시민아파트가 있었던 장소에 찾아가봤어요. 처음에는 '이곳이 과연 서울의 도봉구일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을버스 09번이 없었다면 아무도 도봉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도봉구 끝자락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변은 쓰레기로 뒤덮이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창포원과 연결되는 통행로도 막혀있었고요.

2013년 6월 도시재생 특별법이 재정되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봉구 '현장시장실'로 방문하면서 이동진 구청장이 처음으로 대전차방호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제안했다. 사업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고 추진되었으나 행정절차상의 어려움으로 결국 진행되지 못했다.



평화문화진지 개관식날(2017.10.31) 공간을 둘러보고 있는 관계자들

대전차방호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한 차례 진행된 후 진전 없이 끝 났어요. 그러다가 재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해볼만하다는 의견이 나와 본격적으로 추진했죠. 당시 서울시에서는 대전차방호시설 이 도봉구에 위치해있으니 도봉구도 어떤 역할을 했으면 했어요. 그래서 도봉구가 서울시와 군부대를 오가며 의견을 모으고 협의 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시민아파트는 독특한 소유 구조를 갖고 있다. 대전차방호시설의 소재는 도봉구, 토지 소유는 서울시, 건축물은 국방부의 재산이었다. 평화문화진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 두 곳의 협조가 불가피했다. 특히, 군부대와 연락 체계를 맺는 것은 무엇보다 힘들었다. 군대라는 곳이 본래 폐쇄적이고 보안이 강한 곳이지만 국방 부 내에서도 관리 부대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부대와 연락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어요. 답답해서 가슴 칠 일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농담 삼아 '군부대를 폭파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어요.(웃음) 비슷한 사례가 없으니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매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사실 군부대 내에서도 관할부대가 자꾸 바뀌니까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연락이 닿은 사람이 여군무원이었는데, 군인보다 더힘들더라고요. 연락이 닿은 다음에도 군 내부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그런데 심의절차 주기는 왜 그리 긴지. 기다리는 게 일이었어요.

군 관계자가 직접 현장으로 오겠다는 연락을 받고, 구청장님도 함께 참관하겠다고 하셨을 때는 담당자로서 무척 긴장됐어요. 그날다 같이 현장을 둘러본 후, 건물이 낙후되었지만 고치면 좀 나아지겠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어요. 나름의 성과였죠.

소재지와 토지 소유, 건축물과 모두 다른 공간은 이후 공간 조성에서 끊임없는 조율의 과정을 전제로 하게 된다.

예전에는 국가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무상임대가 가능했는데,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국가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도 사용료를 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군부대와 서울시의 사용권한을 조정하기 위해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어요. 군에서도 군사시설로 사용해야 했거든요. 논의 끝에 나온 것이 '유사시'와 '평상시'라는 용어였어요.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사용하되 유사시는 군에서 사용하는 거죠. 이후 공사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딪혔고 끊임없는 조율 과정을 거쳐야 했답니다.

2015년 1월 군부대로부터 최종 사용허가 공문을 받고 그것을 근거로 서울시에 사업추진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평화문화진지는 군부대와 서울시를 제외하고 시민추진단이라는 중요한 주체가 있었다. 최소영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시민추진단은 오래전부터(2014년) 평화문화진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바람, 공간 조성을 위한 여론을 이미 만들어가고 있었다.

2015년 4월 서울시청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시민추진단과 함께 구청 관계자분들과 활동보고 회의를 가지면서 예산 확보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도봉구의 건축과와 공원녹지과를 통해 공간조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했고, 검토결과를 서울시 문화정책과에 제출했죠. 이후 서울시 문화 관련 담당자들이 대전차방호시설을 여러 차례 방문한 뒤, 비로소 2015년 7월에 서울시장 2차 보고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 예산 지원이 확정됐어요.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이남숙 팀징



당시만 해도 시민아파트를 기억하는 도봉 시민들은 많지 않았다. 같은 도봉구이 지만 상대적으로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시민추진단에서 평화문화진지와 관련된 계획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 포틀럭파티를 제안했어요. 이때 시민들을 초청해 가을음악회를 개최했었어요. 서울시의 협조로 서울시향 음악회도 개최 했고요. 그때 저는 잠시 다른 사업을 담당했지만, 마침 공연담당업무를 해서 평화문화진지 음악회를 지원할 수 있었죠. 폐허 같던 공간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이남숙 팀장은 참고할 사례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해 야 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물론 실패도 많았지만 보람도 컸던 일이었을 터이다. 그중 베를린장벽을 가져온 이야기는 무척 흥미로웠다.

베를린장벽을 옮겨온 과정은 개인적으로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당시 매달 한 번씩 주요사업 추진 회의를 했는데 2016년 1월 회의로 기억해요. 구청장님이 베를린장벽은 평화를 상징하니깐 그걸 평화문화진지에 갖다 놓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게 시작되어 절차를 알아보던 차에 우리나라에 이미 베를린장벽을 가져온 사례가 있더라고요. 2005년 서울 청계천 삼일교 옆에 3개가 설치되었고, 2007년도에 제주도 4·3평화 기념관에 2개가 설치되었죠. 의정부는 2014년도에 5개를 설치를 했고요. 저희는 의정부 사례를 모델로 집중적으로 알아봤어요.

직접 현장을 방문했는데 기관마다 설치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의정부는 단상에 올려져있었고, 제주도는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 게 보호했어요. 우리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자료조사가 끝난 뒤 주한독일대사관에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독일대사관에서 주독한국대사관에 연락하는 방법을 권하더라고요. 어렵게 메일주소를 찾아 구구절절 우리가 왜 독일의 베를 린장벽이 필요한지를 보냈던 기억이 나요.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퇴근 시간 가까이 전화가 왔어요. 황승일 통일관이라고 본인 소개를 했는데, 당시 주독대사관에 계신 통일부 관계자였어요. 처음에는 의심이 나서 통일부에서 일하던 친구에게 확인하고 그랬어요.(웃음) 이후 SNS를 통해 인사도 하고, 관련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일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때마침 통일부에서도 베를린장벽을가지고 오고 싶다고 해서 함께 일을 추진할 수 있었어요.



이남숙 팀장은 주한독일대사관, 주독한국대사관, 통일부를 오가며 베를린 장벽을 평화문화진지로 옮겨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16년 4월, 드디어 주 독일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베를린장벽 무상기증 가능' 통보 문서를 받게 되었지요. 의정부가 1년 반 걸린 과정을 몇 달 만에 해결했어요. 인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배를 통해 도착한 베를린 장벽을 평화문화진지에 설치하는데, 예술가들이 장벽에 그린 그림이 우리나라 정서와 맞지 않아서 수정해야 하는 일도 있었어요.

평화문화진지가 완성되어 가면서 운영방식을 정할 때도 쟁점이 많았어요. 서울시가 관리할 수도 있지만 도봉구에 있는 만큼 도봉 문화재단이 운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구청 직원들은 부서 이동이 많으니 재단이 맡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평화문화진지는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이면서 보람 된 장소입니다. 한 번씩 시간내어서 찾아가 봐요.



송창현 (20대)

평화문화진지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을 수 소문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기억수집소>라 는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도봉산 역 바로 옆에 있는 한신아파트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 에서 살아온 대학생 송창현 님이 어린 시절의 기 억을 기꺼이 공유해주셨습니다. 대학에서 도시 공학을 전공하고 도시를 개발하고 재생하는 일 에 관심이 많은 대학 졸업반 송창현 님과 평화문 화진지의 마당, 전망대, 옥상정원을 거닐어 보았 습니다. 일 젊은 분이세요. 대학생이 그 시절의 기억 **을 갖고 계신다는 게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도봉 한신아파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기억수집소>에 글을 남겨주신 분 중에서 제 여기서 태어났고, 누원초등학교에 다녔어요. 태어 난 후로 26년 쭉 이 동네와 도봉 한신아파트에 산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은 언제부터 나세요?

도봉 1동 고모네 인근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녔던 기억이 나고, 이 근방은 초등학교 때부터 기억이 나요.

당시의 이 동네 모습이 기억나시나요?

저 건너 수락 리버시티 있었던 쪽이 '노원마을'이 라고 되게 낙후된 마을이었어요. 아파트 같은 빌딩 하나 없이, 낮은 지붕의 시골 같은 마을이 펼쳐져 있었어요. 벽돌집이긴 하지만 주거환경이 썩 좋진 않아서 낙후된 이미지였어요. 학원 친구 하나가 저 마을에 살아서 가끔 강 건너 놀러가기도 했어요. 지금은 중랑천 너머 저 아파트 단지가 무척 큰데, 예전에는 가끔 중랑천이 범람해서 저기 마을 사람 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쪽 평화문화진지 주변 풍경은 어땠어요?

어릴 때는 그냥 군인아파트가 있었던 정도로 기억 이 나고, 뚜렷한 기억은 아니지만 풀이 무성한 느 낌이었어요. 어릴 때 저는 이 근처가 무서웠어요. 달랑 군인아파트 하나만 세워져 있고 근처에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상점 같은 게 전혀 없었거든 요. 2000년대 초반, 초등학교에 다닐 때 반 친구 하나가 여기 산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 건물이 많이 낡았을 때였겠네요.

노란 페인트 같은 게 칠해진 느낌이랄까, 창문도 초록색 차양 같은 게 달린 느낌이었고요. 여기 창 포원은 그냥 풀이 무성한, 버려진 곳 같은 느낌이 었어요. 창포원 근처 도봉산역 옆으로 조그만 공원 이 또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덤블링장(트램펄린) 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생일 때마다 거기 덤블링하러 갔어요.

저희 때는 방방이라 불렀는데. (웃음) 지금 평화문화진지랑 다락원체육공원 있는 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뭐가 없으니까. 쪽으로는 종종 와보셨어요?

아무래도 외지고 낙후돼서 굳이 여기까지 와볼 생

예전의 낙후된 군인아파트가 문화예술시설로 좋았어요. 낙후되고 우범지대 같아서 사람들이 꺼리 **새롭게 태어났는데 근처에 살면서 여기 이런** 던 곳이 새롭게 바뀐다는 소식을 알고는 있었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 어떠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저도 구정 활동에 관심이 좀 많아서 주기적으로 소 식을 받아보는 편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 함께 모여 의논하시는 것을 인터넷에서 지켜보기도 했어요. 제 전공이 도시공학이다보니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어요. 이곳을 재생한다는 게 맘에 들었고, 역사성이 깊은 건축에 새로운 생각이 더해지면 좋겠다 싶었는데, 잘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중정에 옛 건물의 계단을 살려놓은 게 좋아요. 요즘은 취업 준비 때문에 전처럼 자주는 못 오지만, 전에는 전시나 발표회나 작가들의 공간 을 오픈하는 날에 가끔 찾아오곤 했어요. 도봉에서 이쪽 한신아파트 쪽에는 문화공간이 많지 않다보 니 주민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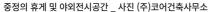
크숍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평화문화진지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나 워 네, 페이스북으로 종종 보고 있어요. 작년인가 여 기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거기 당선돼서 짧게 한번 행사에 참여 해본 적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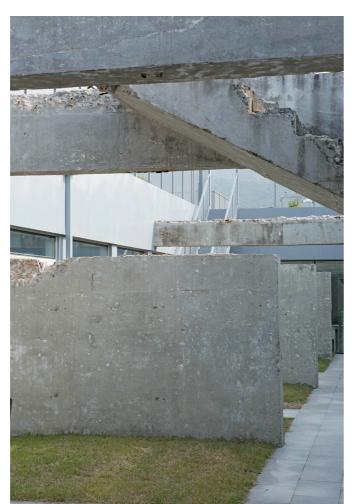
일상예술워크숍이나 춤, 음식 만들기, 작곡 워크숍은 아직 참가해본 적이 없지만 전망대에서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해보신 적은요?

하는 연극 공연은 한번 구경한 적이 있어요.

평화문화진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있 네, 여기 중정이 있는 공간을 좋아해요. 으세요?







중정을 왜 좋아하세요?

노출되어 있는 저 콘크리트의 거친 면도 좋고... 가 끔 생각이 많아서 마음이 복잡할 때 여기 오면 차 분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전공이 도시공학이라고 했는데 원래 공간이 좋아는 해요. 전공을 살려 부동산 개발 쪽의 일을 나 건물 찾아다니고 새롭게 발견하는 것을 좋 아하세요?

찾아보고 싶어요. 한번은 학교에서 서울 안에 잊혀 진 공간들을 찾아내고, 그런 곳들을 어떻게 재생하 고 활용하면 좋을지에 관한 프로젝트 과제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친구랑 도봉동에 있었던 건물을 재생하는 계획을 세워봤어요.

어떤 건물이었어요?

법원 근처에 '성대야구장'이라고 있는데, 사회동호 인들이 와서 야구하는 곳이에요. 거기 옛날 성대 야구부 기숙사로 쓰이던 빨간 건물이 있어요. 방치 되고 낙후된 느낌이긴 하지만 건물의 질감이나 표 면, 건축 재료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엔 이 근처에 영화관이 없어서 그 공간을 사람들을 위한 독립영화 프로젝트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친구에게 그 건물을 재생하자는 아 이디어를 냈어요. 도면을 구하지 못해서 친구랑 그 건물에 들어가서 실제로 측정을 하고 스케치업해 서 만들어본 적이 있어요.

살고 계신 이 지역에, 도봉에 관심이 꽤 있으 많죠. 신 가봐요.

젊은이들은 홍대나 합정처럼 더 북적이는 곳 을 선호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서울 안에서 도 외곽인 도봉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홍대도 좋기는 한데 거리상 멀고, 도봉에 계속 살 아왔기 때문에 지역이 변화하는 데 관심을 두어왔 어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바뀌면 좋겠다 생각하 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지겨운 생각이 들거나, 다른 데 가서 살아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부모님과 살고 있는데 취업하면 독립하고 싶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여 기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에 좀 더 정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북적대는 곳보다는 조용한 곳이 더 좋아요. 이태원이나 종로 쪽으로 저하고 맞는 조용한 곳에서 좀 지내보고 싶기도 해요.

어떻게 도시공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이과생이었지만 인문,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아서 건 축이나 도시에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수험생 시 절엔 힘들 때마다 인터넷으로 멋진 건물이나 건축 물을 보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좋은 공간에 들어가 거나, 그런 곳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자연스럽 게 이쪽이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는 도시 개발 자체보다는 도시 재생 쪽이 더 큰 화두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재생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껏 재개발이 재생이라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지도교수님은 재개발도 하나의 재생이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쪽에선 중심지를 살리고 재개발 하는 것을 재생이라고도 하고, 낙후된 공간의 건축 조를 남겨두고 보완하는 게 재생이라는 분들도 있 어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뭐가 재생인가, 또 정말 재생이 답인가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재생이 답인가?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재생을 원치 않을 수 있잖아요. 재개발도 재생으로 본다면 기존에 살 던 사람들이 금전적인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떠나 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면 재생이 과 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저희 지도교 수님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걸 전달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어요.

가끔 들르실 때 진지에서 좀 개선되거나 바뀌 면 좋겠다 싶은 점이 있나요?

요즘에 자주 못 와봤지만, 상설전시가 너무 없는 느낌? 오랜만에 와서 보면 딱히 볼 게 없어요. 행사 나 축제가 아니면 작가분들이 무얼 하고 지내시는 지 모르니까요. 간단하게라도 벽이나 창에 작품을 전시해주거나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끝 축제 같은 행사도 좀더 자주 하면 좋겠어요.

만일 상상력을 제한하지 않고 내 마음껏 이 음... 저라면 다락원 체육공원 대신에 문화공간을 으세요?

공간을 재생한다면, 혹시 어떤 아이디어가 있 좀 더 만들었을 것 같아요. 배드민턴장은 인근에 또 있거든요.

진지 공간이 시민들에게 좀 더 자유롭고 편하 게 열려 있다면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지금은 취업 준비 때문에 좀 여유가 없지만, 청년 들이 만나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 으면 좋겠어요. 공간이 좋아서 친구들과 함께 오고 싶어도 여기가 너무 외곽이다 보니 좀 애매해요. 카페 같은 것이 좀 더 보충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현 씨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에 가서 사진 한 장 남겨볼까요?

과거의 흔적이 현재가 되기까지

대전차방호시설 때의 흔적을 최대한 남기려는 데 노력 콘크리트 구조물 관리와 유지가 중요한 숙제

김우태 팀장(도봉구청 건축과 건축시설팀, 현 퇴직)

김우태 팀장은 서울시청 도시정비과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도 봉구청 건축과로 발령받았다.

둘리뮤지엄, 기적의 도서관 설립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며, 평화 문화진지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부터 철거, 공사 업무를 담당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시민추진단이 새로운 공간 조성안을 제안했던 것이 기폭 제 역할을 했어요. 당시 대전차방호시설은 쓰레기 적치장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폐허였죠. 저녁에는 음산해서 아무도 갈 수가 없었어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사실 지리적으로 보면 의정부에 가까운 변두리잖아요. 시민들의 관심을 받는 지역은 아니죠. 그런데 그 공간을 시민추진단이 관심을 갖고 공간 개선을 적극적으로 제안했어요.

공사 진행 과정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는 진행 방식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지, 기존 건물을 최대한 유지한 채 일부만 공사를 할지 논의를 많이 했어요. 다행히 기둥 같은 기초 구조물은 단단하다고 해서그 부분은 최대한 살린 채 기타 부분들을 손보기로 했지요. 그런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니 튼튼하다는 기둥만 남긴다고 과거 공간의 의미를 재현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다 말고 잠시 철거를 중단시켰어요. 최대한 공간의 원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죠. 그래서 끊어진 계단이나 벽, 보 등 최대한 남길 수 있는 건남긴 거예요. 이미지로 남겨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설계를 담당하는 코어건축사무소도 장소의 의미를 살리거나 공간을 재생하려는 태도가 우리와 잘 맞았어요. 대전차 방호시설의 흔적을 많이 남겨두려는 의지가 보였죠.

나중에 평화문화진지가 여러 건축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런 태도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건축 설계안을 공모를 통해 선정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물이 너무 낙후되어서 공사할 때도 고민이 많았어요. 기둥을 포함한 기초 구조물만 남기고 나머지 공간은 추가로 설계했는데 처음 설계안은 판문점을 연상시켜서 미적으로 아쉬움이 좀 있었죠.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건축가와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코어건축사사무소 설계안이 선정됐어요. 코어 건축사사무소 설계안은 처음 설계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 랐어요. 대전차방호시설이 동서를 횡단하는, 남북의 이동 을 끊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것을 옥상을 통해서 있는 내용 이 설계안에 있었어요. 옥상에 올라가면 도봉산과 수락산, 중랑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평화문화진지만으로는 시민들이 찾아올 것 같지 않았어요. 때마침 창동에 있던 체 육공원이 평화문화진지 부근으로 이전 확정되면서 체육공 원과 창포원, 평화문화진지를 하나로 잇는 커다란 주민이 용시설을 계획할 수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교통 편도 살펴야 했는데, 인근에 지하철과 버스가 있지만 평화 본래 평화문화진지 주변은 모두 논밭이었어요. 창포원과 거예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새롭게 만든 공간이죠. 기존의 대전차가 들어가던 곳을 그 죠.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장소입니다. 대로 두면서 앞부분은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을 짓고 그 사 이에 공간을 둔거죠. 심사위원들이 이 부분을 좋게 봤어요.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중정은 대전차방호시설의 옛 모습과 새 건축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평화문화진지의 역사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이곳에 파라솔을 세워서 그늘을 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방문객들이 휴식을 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평화문화진지 주변에 공터와 논밭이 있어요. 이 부지는 공사할 때 활용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공사 전후로 달라진 주변 환경들이 있 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문화진지와는 거리가 있었죠. 주차공간도 여의치 않았고 다락원체육공원이 들어서면서 일부 정리되었지만 인근에 요. 그래서 지하철 출구를 추가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접근 여전히 사유지가 남아있죠. 처음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매 성을 높이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 입구에서 꽤 매가 어려워서 결국 그대로 뒀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걸어오거나 굴다리를 건너와야 해서 접근성이 떨어졌을 땅을 파는 대신 다른 땅을 받았으면 했는데 서울에서 적절 한 땅을 찾는 게 쉽지 않았죠. 주변 토지를 주말농장처럼 주민들이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쉬움이 남습

코어건축사사무소 설계안에서 인상 깊었던 그것뿐만 아니라 본래 평화문화진지와 창포원 사이에 도로 도 있었어요. 지금은 두 공간의 구분이 불분명하지만 예전 에는 분리되어 있었어요.

당선된 설계안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중정'이었어 2동과 3동 사이에 있는 평화광장은 주변에서 가로막는 것 요. 중정은 한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축양식인데, 건물 없이 뚫려있어요. 개인적으로 평화광장의 이름을 '연리지' 안과 바깥 사이의 '□'자형 뜰을 말해요. 코어사무소에서 로 제안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평화광장'으로 부르기로 했

모든 과정은 군부대와 협의하고 진행해야 했는데, 그게 굉 처음 제안했을 때 도봉구청 내 공원 업무 주관부서에서는 장히 힘들었어요. 군부대가 과거에 비해서는 개방되었지만 10m 이하, 5m 이하로 짓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높이라면 여전히 권위적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분단 상태잖아 전망대보다는 초소에 가깝죠. 다행히 전망대 위치가 대전 요. 한편으로는 북한에서 침입하는 일이 있을까 의문도 들 차방호시설의 앞 방향이 아니라 뒤를 보는 방향이라서 가 고, 또 요즘은 대전차보다는 공중전을 하는 시대잖아요. 예 능했어요. 앞쪽은 유사시 포를 쏘는 곳이니깐 시야를 가리 전처럼 총이 주가 되는 전쟁은 아닌데 싶은 생각도 들지만 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군은 항상 방어가 모든 판단의 최우선일 수밖에 없으니까 여담으로, 전망대를 자세히 보면 학 모양이에요. 도로 쪽에 군의 요구를 고려해야 했죠. 군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말하 서 올려다보면 특히 그러한데, 원형으로 지으면 공간도 넓 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했고, 그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었겠지만 도봉구의 상징인 학을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중요했어요. 전망대의 옹벽이나 2층 옥상의 펜스 같은 엄 호시설도 다 그런 과정에서 생긴 거죠. 전망대도 전체를 관 망하는 관측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니 최종 동의 한 거죠.

코어건축사사무소 입장에서는 처음 제안한 설계안에서 계 평화문화진지가 완공된 후에 여러 번 갔습니다. 다 끝내고 속 수정되는 부분들이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많은 것들을 나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이야 반영하고 이해해줬어요.

사업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처음 설계안에는 전망대가 없었어요. 2층 옥상정원에서도 으로 퇴색되지 않으려면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예산이 충 전경을 감상할 수는 있지만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래서 전 분하지 않다 보니 더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했어요. 앞으로 망대 설치를 제안했는데, 다행히 주변에서 동의해주셔서 좀 더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역곡절은 많았습니다. 예산은 적은데 전망대까지 설치하자니 그럴 만도 했어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군부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대에 갔죠. 평화문화진지가 군사시설이다 보니 제한조건이 있었어요. 주변 건축물 높이가 14m를 넘길 수 없는 거죠.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기해주셨고요. 아쉬운 점은 예전 건물을 더 많이 남기고 싶 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완공된 후에도 기존 건축물이 얼마나 잘 유지될까, 튼튼한 부분만 남겨두었다고 해도 이미 오래된 건물이라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하는 염려도 남아요. 콘크리트가 중화현상

66

'와, 아파트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기 사는 친구가 위대해 보였죠.

99



김은미 님은 시민아파트 주변에서 친구와 밭을 뛰어 다니고, 근처 공장에서 나온 기왓장을 깨다가 공깃돌을 만들며 놀았다고 했습니다. _ 사진 김수진

김은미 (40대)

평화문화진지 해설사로 활동하시는 송정화 선생님 께 진지의 역사를 비롯해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전쟁의 흔적, 그리고 시민아파트 시절의 흔적에 대해설명을 들은 적 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에 이곳에서 뛰어 놀았다는 동료 해설사 김은미 선생님에대해 들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김은미 선생님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사 연락드리니바쁜 틈을 쪼개서 흔쾌히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역사문화 선생님의 입담으로 재미난 이야기를 쏟아내 주셔서 듣는 동안 시간여행을 하는기분이었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김은미고요, 태어나서 쭉 도봉에서만 47년 살 았어요. 결혼 후 3개월간 잠시 다른 구로 나갔다가 3 개월 후에 다시 도봉으로 주소 이전을 했어요.

도봉으로 돌아오신 이유가 있나요?

김은미 선생님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저한테 익숙한 곳이어서요. 가끔은 제가 도봉을 떠나 지 못하는 것인지 떠나지 않는 것인지 고민될 때가 있 어요. 예전에는 도봉이 익숙하기도 하고, 다른 구에

정착한다는 게 좀 겁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떠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익숙함이 이제는 저에게 다른 문화권, 생활권을 준 것 같아요.

결혼해서 20년 남짓 도봉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젊을 때는 거주지를 정할 때 돈을 벌고 살림을 늘린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삶을 누리고 문화를 즐기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봉이 좋아요. 제가 역사문화 강사로 수업을 하러 서울 여기저기 다녀 봐도 도봉만한 데가 없었어요. 공장도 별로 없고,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익숙해요.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반백년을 살았어요. 저는 아직 저만큼 도 봉에 오래 산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근처에 60년 사신 어르신 와. 그렇군요. 저도 창동에서만 47년이에요. 을 뵈었어요.

도봉은 어떻게 달랐어요?

잠시 다른 동네에 사셨다고 했는데, 거기와 결혼 후 강북구 시댁 근처에 살다가 도봉으로 다시 왔는데 아무래도 강북구 번화가에서 살던 남편은 도봉구로 오는 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우겨서

이사 왔는데 이젠 남편이 더 좋아해요. 조금만 가면 도봉산, 수락산, 짚 앞에는 초안산이 있어요. 그런 게 자신에게 더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도봉에 사는 게 자랑까지는 아니라 해도 편안한 느낌이 있 어요. 창동은 교통도 편리하고요.

은 무슨 뜻인가요?

도봉구에 사는 게 자랑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우리 세대, 지금의 40대들에게 자랑거리란 빌딩이 많고 도시화가 된 장소, 부동산 가격에 의한 자랑거 리가 있잖아요. 재산권이라 하나? 그런데 남편이

오십 넘으면서 더는 그런 게 자랑거리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삶이 편안한가가 중요하죠. 평수가 작은 집에 살지만 딱히 불만이 없어요. 도봉구가 과거 경제적인 부분 같은 데서는 자랑거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숲세권' 같은 것들이 부상하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죠.

나고 자란 동네가 어찌 보면 지겨울 수도 있 도봉에 오래 살았지만 도봉을 구석구석 아는 건 아 갖게 되셨어요?

는데, 어떻게 동네에 이토록 애정과 관심이 니었어요. 발바닥공원은 30대 중반, 무수골도 30 대 후반, 쌍문동 뒤 선덕고등학교쪽도 40대가 되어 서야 가보게 됐죠. 예전에는 차 없이 아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곳 위주로 다녔어요. 결혼하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가게 된 곳, 아이들이 졸업한 뒤 남편과 가게 된 곳, 삶의 패턴이 달라지면서 가는 장소도 달라지더라고요. 간송 옛집, 연산군묘, 김수영 문 학관 같은 곳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죠. 20대, 30대, 40대에 발견한 장소들이 다 달랐어요. 도봉 구 석구석에, 다니면 다닐수록 좋은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와보셨나요?

어린 시절 여기 평화문화진지 일대에도 자주 중학교 때 의정부로 이사간 친구가 집에 초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땐 여기서 회룡역까지 가면 그 뒤 론 다 비포장도로였어요.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데

65

이 길에 검문소가 몇 개나 있었고, 어렸을 땐 그게 좀 무서웠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여기 근처에 서 석재공장을 하시는 친구도 있었어요. 당시엔 무덤 앞에 무신상, 무인상 세우는 풍습이 있어 석재 공장이 아주 잘됐거든요. 매일 그 친구 집에 공부하러 오가느라 이 근처를 잘 알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바로 여기 시민아파트에 친구가 살았어요. '아파트'라는 것을 제 눈으로 본 건 이 시민아파트가 처음이었죠. 사람들이 이렇게 칸칸이 쌓인 집에 산다는 게 처음엔 이해가 안됐어 요. '와, 아파트라는 게 이런 거구나!'하면서 여기 사는 친구가 아주 위대해 보였죠. 우리집은 그냥 너 른 마당뿐인데 친구네는 현대식이고,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평수가 아주 작아서 우리집이 조금 넓다는 거 하나는 위안이 됐죠.

또, 당시에 이리 들어오려면 도봉역인가에 내려서 오솔길을 지나 걸어 들어와야 했어요. 지금 평화문화 진지 요 앞이 전부 논밭이었고 기와 공장, 염색 공장이 좀 있었어요. 예전에는 창동역 근처에서부터 여 기까지 가내수공업 공장이 아주 많았거든요. 근처에 제대로 된 도로도 하나 없이 좁은 오솔길을 지나 공 장지대로, 논밭 한가운데로 들어왔는데 아파트라는 게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 사는구나!' 논밭 한가운데 있는 집이니까 주민들이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바로 따다 먹으면서 자급자 족하는 것도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하지만 이 안에 탱크가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나중에 이 공간 에 탱크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정말 놀랐죠. 아마 주민들 눈에 띄지 않도록 막을 쳐놓거나 했지 싶어요.

당시 아파트란 건물 자체가 흔치 않은 시대였죠? 네, 적어도 동네에는 없었어요. 그 후에 생긴 창동역 상아아파트에 살던 친구네 집에 갔을 때는 버튼을

돌려 보일러를 트는 걸 보고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집은 연탄을 갈았는데, 그런게 놀랍고 신기해서 엄마한테도 말했죠. 여기 시민아파트에선 친구랑 무진장 뛰어놀았던 기억이 나요.





여기 아파트에 놀이터 같은 것도 있었나요? 지금 요 앞 잔디마당에 모래밭이 있었고, 타이어로 만들어진 놀이기구랑 철봉 같은 게 몇 개 있었어요.

시설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개는 밭을 뛰어다녔고, 근처 공장에서 나온 기왓장 깨다가 공깃 돌 만들고 그랬어요.

여기는 놀기 좋은 공간이었지만 자주 오게 되는 곳은 아니었던 거 같아요. 평상 같은 것도 놓여있고 사 람들도 많이 살았는데, 그래도 오픈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서 오는 길이 좀 외지고 무서웠어요.

주민들은 평상에 모여 앉아 어울리거나 쉬 기도 하는데, 이 아파트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울리거나 하지는 않 았다는 말씀이죠?

네, 저희 어머니가 92세고 40년 넘게 창동에 사셨 는데 엄마도 여길 모르셨어요. '아, 거기 뭐 하나 있 다.'하는 정도지 여기 아파트가 있다는 걸 아셨다 거나, 굳이 찾아서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의 평화문화진지 이 뒷길로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외져서 무서웠나요, 아니면 군인들이 보이 거나 해서 무서웠나요?

당시에 이 주변에 군인들이 엄청 많이 살았어요. 의정 부랑도 가까웠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이 주변에 군부대가 많았어요, 5층짜리 부대 아파트도 많았고요.

주변이 다 부대원들이 사는 지역이었고 방호이수지역이었어요. 초안산에도 헬기장, 전투장, 초소가 다 운영됐으니까 당시는 군인들을 보는 게 무섭거나 이상하진 않았어요. 다만 제가 살던 창동은 트인 골목도 많고 집도 띄엄띄엄 있었는데 여긴 논밭에 비포장도로, 초소 같은 것들이라 친구 따라 이리로 오는 길이 뚫려있는 느낌이 아니었죠. 불빛도 없고 어두침침했어요. 당시에는 여기 도봉역만 지나면 불빛 하나 없는 아주 깜깜한 곳이었어요.

당시에 이곳이 변화한다는 사실에 신선한 충격도 받고 나름 기대도 하셨을 텐데, 지금 보시는 평화문화진지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이곳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근사한 시설이 있는데도 여기까지 사람들이 오지 못하고, 예전처럼 외지고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여기가 이렇게 변화된 걸

저처럼 관심 있는 몇몇만 아는 거예요. 교통도 편리한데 많이 못 오시는 걸 보면 홍보가 많이 필요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인식이 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쟁의 역사나 기억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은 아픈 과거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기에 평화와 문화와 만남, 소통이란 개념을 더 강조하면 더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한 마디로 기억은 재생했는데 공간에 대한 재생은 좀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평화문화진지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생소한 공간이지만 제겐 이 장소에 대한 기억과 애정과 관심이 있어요. 예전의 제가 이 건물 어느 계단을오르내렸겠지 하면서, 이 공간에 놀러다니던 어린 시절의 제가 지금 이 공간의 해설사가 되어 있을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그게 항상 신기하고 놀라워요. 이 공간도 늘 새롭게 느껴지고요.

일종의 시간여행 같은 느낌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재미있어요. 도봉구를 다닐 때마다 '와, 이런 공간이 여기 있구나!' 새롭게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저는 아직 도봉구 를 다 모르는 것 같아요. 도봉에 오래 산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당시만 해도 비교적 건물은 깨끗하고 낙후 된 느낌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도 이곳에 와보신 적이 있나요? 이 건물이 낡아가는 과정을 보셨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이 동네 살면서 지나다니긴 했지만 이곳이 노후화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지는 못했어요. 여기 시민아파트 주위로 높은 나무가 에워싸고 있어 밖에선 아파트가 잘 보이지 않았고, 90년 대부터는 공사할 때 치는 차단막 같은 것들이 항상

둘러쳐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음산하다는 인상이 있었어요. 사실 어린 시절 이후로는 여기 이 아파트까지 들어와 보지는 않았어요.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낙후됐던 이 지역이 90년대 초부터 도로나 병원도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개발이 됐죠. 근데 여기만 여전히 낙후된 상태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차단막 같은 것으로 가려져 있고.

그리고 저는 아이 키울 때 바로 이 옆에서 주말농장을 했어요. 살던 사람들이 언제 다 나갔는지는 몰랐지만 건물이 부서져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아마 2007~8년 즈음이었을 것 같은데, 주차할 때마다 악취가 나고 음산한 분위기였어요. 나중에 이 공간이 협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 반가워서 '평화문화진지 공론의 장'에 가게 됐죠. 날짜까지 잊히지 않아요. 5월 1일, 그날 노동절이었는데도 갔어요. 여기가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 변화된다는 얘기에 정말이지 너무도 기뻤어요. 당시 김용현 이사, 최소영 씨 등에게 여기가 문화공간으로 바뀐다는 말을 듣고 변화가 많겠구나 했는데, 그게 3년 전이네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축

1970년에 지어진 대전차방호시설은 1972년부터 시민아파트로 기능하다 2004년 철거됐다. 34년간 건축물로써의 수명을 다한 셈이다. 10여년 후 같은 자리에 평화문화진지가 세워졌다.(2017년) 평화문화진지는 앞으로 어떤 역사를 써나가게 될까.

2018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2018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 등 다수의 건축상을 받은 평화문화진지는 코어건축사사무소가 설계했다. 평화문화진지는 유독 상복이 많은 작품이다. 유종수, 김빈 건축사를 만나 평화문화진지 설계와 시공 과정,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코어건축사무소

코어건축사사무소(CoRe architects)는 젊은 건축가들(유종수, 김빈)에 의해서 2014년 서울에서 설립되었다.

구축방식, 프로그램, 재료의 실험,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대응하는 유형 찾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 건축과 도시, 인테리어, 인프라시설 등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부산시, 세종시 공공건축가로 활동 중이고, 2016 김수근프리뷰 상, 신진건축사대상, 2018 서울시건축상, 건축문화대상 등을 수상했다. 대표작으로는 속초 상상가, 신설동 한옥 리모델링, 평화문화진지, 서진특수학교, 2019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등이 있으며, SH은평센터, 낙산성곽하늘정원 전망대, 광나루 수난구조대, 신촌동 복합시설 등의 현상설계에 당선되어 진행 중에 있다.

평화문화진지

유종수, 김빈 조아란, 강희라, 박윤정, 최영래 49,830㎡ 1,871.55㎡ 1,875.12㎡ 지상2층 20m 11대 3.76% 철근콘크리트, 철골 고열처리목재패널, 콘크리트폴리싱 콘크리트폴리싱, 석고보드위 도장 SDM구조기술사사무소
콘크리트폴리싱, 석고보드위 도장
SUM구조기출사자무조 청림설비기술사사무소 ㈜극동문화전기설계
씨엠글로벌건설㈜ 2015.10.15.~2016.11.23. 2016.12.14.~2017.11.06.

평화문화진지 건축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건축 설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015년 서울시 공공건축가에 선정되면서 평화문화진지 설계에 참여하게 됐어요. 평화문화진지의 옛 건물인 대전차방호시설은 건축가로 만나기 힘든 건축물이에요. 작가로서 호기심도 생겼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어서 '무조건 하자' 싶었어요. 당시 다섯팀이 참여했는데 저희가 최종 당선되었어요. 운이 좋았지요.

서울시의 도시정책이 재건축보다 도시재생에 역점을 두면서 평화문화진지 설계 방향과 잘 맞았어요. 시작은 서울시 사업이었지만 중간에 도봉구로 사업주체가 바뀌면서 도봉구와 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시 동북4구 발전협의회¹⁾에서 재개발과 관련된 사업이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그 와중에 창동에 있던 체육시설이 시민아파트 부근으로 이전됐어요. 주변에 창포공원도 있었던지라 그런 배경을 고려하며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평화문화진지에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인상은 어땠나요?

고생길이 열렸구나.(웃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이미 아파트는 철거되고 쓰레기로 가득한 상태였어요. 안전등급 E를 받았으니깐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완전 폐허였어요. 곳곳에 펜스가 쳐져 있어 공간을 제한적으로만 볼 수 있었는데, 펜스 사이로 한 두 동만 보고 내부는 정확하게 가늠하지 못했어요. 공사가 시작된 후 골조가 드러났을 때 비로소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계획한 것들이 가능하겠다는 확신이 조금씩 들었어요.

설계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기존 공간과 구조체를 최대한 남겨두는 게 큰 방향이었어요. 콘크리트 덩어리뿐만 아니라 벽, 보, 소총 거치대, 소총수 번호, 낙서 등 남길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남기려고 했어요. 어쨌든 오랜 시간이 축척되어 만들어진 공간이잖아요. 대전차방호시설의 본래 흔적을 남기면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당시 역사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공간이 시민들의 문화공간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더해 생명을 계속 이어가길 바랐어요.

공간적으로 살펴보면, 다섯 개의 동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건축물을 하나의 건물처럼 연결하고 싶었어요. 실제 철거를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내부는 이미 하나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동에서 서까지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돼 있었던 거죠.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하나의 건물로 보였으면 해서 기존에 없었던 옥상에 지붕을 연결했습니다.

사진 _ ㈜코어건축사무소













사진 _ ㈜코어건축사무소











다섯 개 동을 연결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처럼 과밀이 심한 도시에서 길이가 250미터 되는 건물은 흔치 않아요. 주변 자연 경관은 수려했고요. 이 공간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았으면 했어요. 공간 곳곳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습을 상상했죠.

설계공모 심사위원들이 설계안에서 중정 부분을 인상 깊게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정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중정은 새롭게 만든 공간이에요. ㄷ자의 대전차 작전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비워내고 전면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ㅁ자의 건물로 만들었어요. 중정은 군사시설로서의 작전공간과 문화시설로서의 창작공간 사이에 만들어진 공간으로, 과거에는 병사들의 휴식 및 업무 공간이었고 지금은 입주작가와 방문객의 휴식공간으로 쓰이고 있어요. 과거의 흔적과 현재의 이야기를 함께 담아내는 공간이 되는 거죠. 시민들이 옥상공원에 접근하기 위한 접근로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전시가 있을 때는 전시도 보고 휴식도 할 수도 있는 다양한 기능을 생각했습니다.

설계를 할 때 공간을 충분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공사하면서 새롭게 알거나 발견한 부분이 있나요?

설계를 완성하는 데까지 1년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리모델링의 특성상 실제로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했다고 보면 돼요. 공사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발견되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반복됐어요.

공사 시작 전에 도봉구에서 의정부로 연결되는 도로건설이 확정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본래 다섯 동이던 기존 벙커의 동쪽 일부가 잘려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또, 다섯 동을 하나의 건물처럼 연결하려 했는데, 알고 보니 본래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있었어요. 구청에서도 몰랐던 통로였죠. 2동과 3동 사이 지하연결통로였는데, 지하와 지상을 오가며 중랑천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처음에 보고, '와! 너무 좋다.'했어요. 빛도 들게 하고, 지붕 밖으로 연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과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아쉬움으로 남았네요.

처음 설계안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전망대는 본래 계획에 없었는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됐어요. 군부대에서 관측소를 요청해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전망대가 되었어요. 처음 계획안에는 없었지만 전망대가 있는 것은 좋을 듯했고, 특정인의 소유가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찬성했어요. 덕분에 새롭게디자인할 수 있는 건축물이 생긴 것도 좋았고요.

전망대는 주변 자연경관을 사방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열십자 형태로 디자인했어요. 열십자 형태라서 방향에 따라 길이가 다르고 외부테라스가 있어서 공간의 깊이가 더 해졌어요. 전망대치고 높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주변에 건물이 없어서 전망대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봐요. 가끔 평화문화진지를 방문할 때면 전망대에 올라가보는데, 방문할 때마다 어르신 한두 분은 꼭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평화문화진지가 군사시설이라는 점이 저희에게는 양면으로 영향이 있었어요.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는 면에서는 좋았지만, 실제 작업에서는 제한 조건이 많았어요. 군부대에서 군사시설로써 요청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기능들이 디자인과 부딪히는 요소가 되었어요. 전망대 이외에도 유사시 총을 쏠 수 있는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 달라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고민 끝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총 공사기간은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본래 서울시에 요청한 예산은 40억 정도였는데 최종적으로는 28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받았어요. 서울시 예산만으로는 부족해 도봉구에서도 추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도 부족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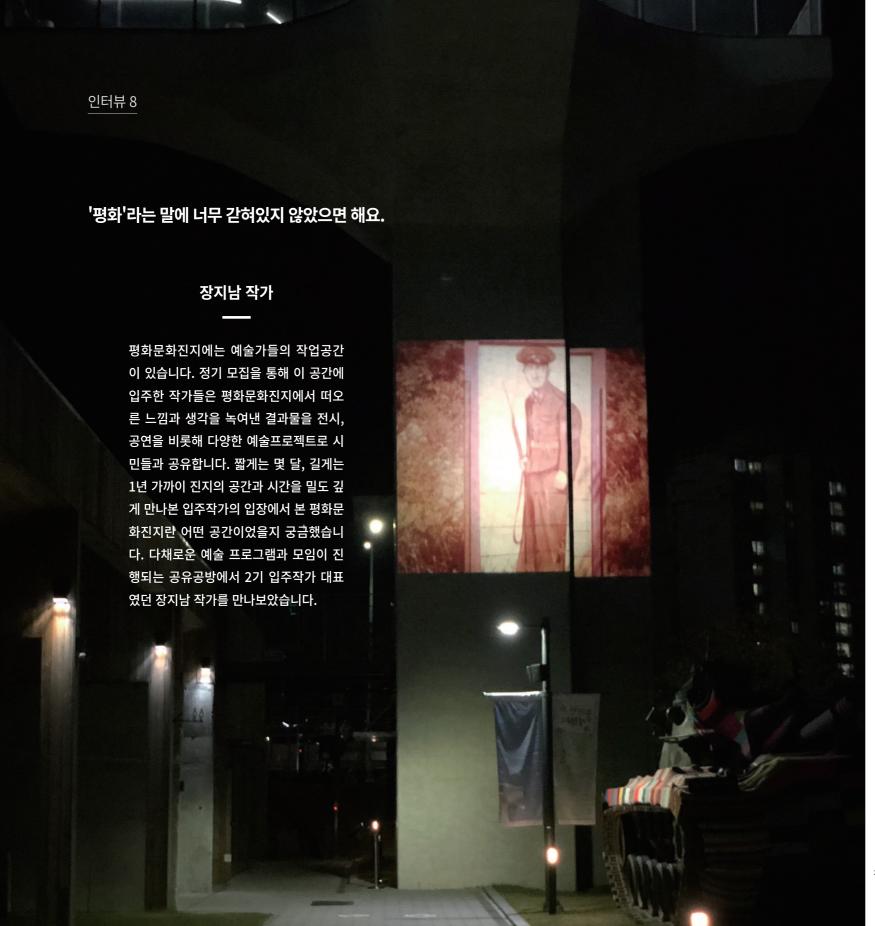
게다가 철거를 하면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계속 발견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건축가로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예산 이외의 부분은 많이 배려해주셨어요. 평화문화진지는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라 설계과정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았어요. 지금도 엄연한 군사시설이 잖아요. 필요시 군부대와 계속 협의를 해야 했고, 시민추진단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했어요. 그런 혐의과정을 도봉구에서 잘 조율해줬어요.



앞으로 평화문화진지가 어떻게 자리잡으면 좋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평화문화진지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행사를 많이 해요. 건축 가 입장에서는 처음 설계할 때 계획했던 대로 시민들이 공 간을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방문하면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데요. 행사 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 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이곳이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으로 활용되잖아 요. 갈 때마다 블라인드가 쳐져있어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작가들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주 1회 혹은 월 1회라도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평화문화진지에 꼭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이 있어야했을까 싶기도 해요. 좀더 열어두고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저는 영화랑 예술프로젝트 작업하는 장지남입니다. 극영화로 시작해서 요즘은 주로 다큐멘터 리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시는 여러 군데 있는데 평화문화진지에 입주를 신청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평화문화진지가 공사를 하고 있을 때부터 이 공간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 작업이 이런 서울 북쪽에 남겨진 군사시설에 관련된 이야기를 수집하고, 그 구조물들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고 버려졌는지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걸 다큐멘터리로 담으시는 거예요?

내년 개봉을 목표로 그 작업을 꽤 오래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화문화진지를 꾸준히 지켜 봐왔죠.

여기 공사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와보셨나요, 아니면 그 전에 방치된 상태였을 때도 와보셨나요?

방치된 상태로 있을 때도 지나다니면서 봤고, 공사가 시작된다는 말을 듣고 난 후로 더 자주 와 봤던 것 같아요. 집이 의정부라서 오가는 길에 종종 들여다봤죠.

여기가 예술공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감회가 남다르셨겠네요.

아무래도 많이 궁금했어요. 저에게는 직접적인 작업 대상인데 그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쉬움도 있었고요.

언젠가는 이런 공간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텐데, 처음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반 갑기도 했고 사실 걱정이 더 많았죠.

관에서 주도하는 흔한 문화공간처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요.

군사시설이었다가 시민아파트로 활용되고, 이후로 방치되는 등 이 공간에 얽힌 역사가 적 지 않은데 입주작가였던 때에 그런 과거의 흔적들을 발견하신 적이 있나요?

사실 공사 전부터 이곳이 저에게는 큰 관심사였어요. 어떤 식으로 이곳을 풀어나갈지가 많이 궁금해서 많이 기웃거렸거든요. 대전차방호벽이라는 게 실은 서울의 북쪽에 산재해 있는데, 이 곳은 시민아파트가 함께 지어졌다는게 재미있었죠. 여기만 해도 도봉산에서 수락산 넘어 불암 산까지 수평적으로 연결된 구조인데, 발견이라고 할 것도 없이 평화문화진지의 좌우측을 향해 걷다 보면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시민아파트 다섯 동 외에 나머지는 대전차방호벽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군요.

도로를 넓히느라 끝이 조금 잘려 나갔지만, 여기는 시민아파트가 있었고, 아시다시피 위장 개 념으로 지어진 거였죠. 물론 당시에 많이 지었던 시민아파트로의 역할도 했어요. 도봉시민아파 트 관련 자료를 찾다 보면 다른 시민아파트는 철거 전 자료가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 도봉시민 아파트는 군사시설이라 그런지 자료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설치목적을 명확히 밝히기는 쉽 지 않으니까요.

작년에 전망대에 전시하신 작품이 거기서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만드신 거라고 들었어요.

대전차방호벽이라는 개념이 1차 대전 때 독일에서 만든 거예요. 프랑스, 네덜란드를 거쳐 발전 해 온 시설이죠. 전시 자체보다는 제 영화에 필요해서 해외의 문서보관소 같은 곳에 세계대전 당시 벙커전 자료들을 찾으러 다녔죠. 유럽에서도 이런 전쟁 유물 혹은 기념물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여기서도 논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1기 작가님들은 여기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을 때 입주하신 걸로 아는데 2기 때는 어땠나요?

저희 때도 일부 완공이 덜 된 부분이 있긴 했지만 지내는 데 불편함은 전혀 없었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계시는 분들이 신경써주셨어요.

거의 1년간 입주작가로 활동하셨는데 처음 입주하실 때와 나가실 때 진지에서 좀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제 생각엔 진지가 일반 시민들에게 좀 더 오픈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GHOST BUNKER (장지남 작가, 2019) 장면

81

작가들의 작업공간이 시민들에게 오픈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이 공간이 작가들만의 공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굉장한 역사와 서사가 있는 공간인데 너무 접근이 쉽고, 마치 공원처럼 너무 쉽게 오픈되고 있는 건 문제라고 봐요. 아무래 도 구조적으로 창포원과 체육공원 사이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진지를 지나다니게 되는데, 이 곳을 따로 작가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도 안되고요.

너무 오픈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창포원이나 체육공원과의 동선을 좀 분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가들의 작업에 방 해가 돼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역사와 배경을 가진 공간을 구분없이 일상적인 공간으로 하나 로 묶어낸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거죠. 가끔은 이 곳의 역사와 시간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 으면 해요.

이 공간에 대한 진지함이나 엄숙함이 안 느껴져서요?

진지함이나 엄숙함을 먼저 요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서울의 몇몇 공간은 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시 산하에 문화공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공간이 '시민참여'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좀 문제에요. 이런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때 반드시 캐주얼하게 바꿔야만 하는지도 묻고 싶어요. 평화문화진지 같은 경우에도 일부나마 원형을 좀 더 남겨두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원형은 뒤로 숨겨두고 세련된 모습이 얼굴이 되었잖아요. 원형에 대한 접근이 좀 더 가까웠다면 그 공간을 통해 시대의 무게감이 조금 채워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캐주얼한 활동이나 시설이 이 공간의 성격이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공간을 정의히는 요소가 하나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곳에 숨겨진 더 많은 서사를 시민들과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입주작가로 지냈지만 이곳을 그저 한정된 용도로만 사용하기엔 좀 아쉽다는 거죠.

입주하시기 전부터 오래 봐오신 공간이니까 아무래도 애정이 깊으실 것 같아요. 입주작가로 생활하시는 동안에도 이 공간이 작업에 영향을 주었나요?

저한테는 영감이 많이 됐죠. 이 벽 하나만으로도 제겐 영감이죠. 조준사격시설 같은 것도 건설 시기마다 그 사이즈가 변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작업에 집중하게 해주는 힘이 됐죠.

원래 방공호로 쓰이던 건물에 나무를 덧대서 지었잖아요. 원래 건물을 헐지 않고 그 구조를 살려낸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아이디어죠. 물론 이 구조물을 헐지 않아야 하는 조건들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나무를 덧대는 대신 콘크리트를 그대로 노출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 벽이 너무 얇아서 콘크리트 타설이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담이지만 돌아 다니다보면 미국산 벽돌로 지은 벙커들은 벽이 아주 두텁고 천장이 높아요. 지역마다 벙커의 특징과 거기에 담긴 이야기가 아주 다양해서 흥미롭죠. 다만 평화문화진지는 전면이 창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쉽네요. 창이 크니까 여름엔 너무 덥고,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니까요. 역사적 맥락으로써 '벽'의 이미지를 조금 더 활용했으면 어떨까 싶었어요.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작업하는 작가들 방문을 다 열어놓을 수도 없고... 요즘은 방문 앞에 어떤 작가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글이나 사진을 붙여놓 았더라고요. 오픈하우스처럼 시민들과 좀더 적극적으로 만나는 자리도 있고요. 혹시 이 공간 안에서 유난히 기억에 남거나 애정이 가는 곳이 있나요?

앞에 붙여둔 작가 소개를 시민들이 읽기는 하겠지만, 사실 지나치게 관념적인 소개라고 봐요. 저부터도 도록에 쓰는 소개글을 붙여놨으니까요.

오픈스튜디오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자리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자화자찬이고요. 작가와 시민들의 거리는 앞으로도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공간보다 시간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새벽까지 혼자 남아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 거든요. 그때 저는 유령을 봤어요.

앗, 정말로요?

형태가 완전 사람 같지는 않았지만, 어린 남자아이 같았어요. 쓱 지나가길래 제가 따라가고 그랬어요.

평소에도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여기서 처음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제가 버려진 무덤 같은 데를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낯선 데 들어가면 술이나 사탕을 넣어두거나 뿌리면서 다녀요.

여기서도 사나흘 정도 그 아이를 봤고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입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라 이 친구가 제게 이 공간을 소개하는 건가 했죠.

저보다 몇 걸음 앞에서 마치 가이드처럼 공간을 여기저기 안내했어요. 그 유령 아이를 다시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 뒤로는 못 봤어요.

예술가 입장에서 앞으로 이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 싶으신가요?

저는 이 공간의 이름이 '평화문화진지'라는 게 좀 아쉬웠어요. 주제가 '평화'라는 것도 좀 어색하게 느껴졌고요. 그건 사실 전쟁사 속의 평화 같은 느낌이잖아요. '북한과 갈등하지 않기때문에 전쟁의 공포로부터 안전하다', 이런 식의 평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이름 자체가 '평화문화진지'이다보니 그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있어요. 물론 평화는 당연히 와야 하고 '내안의 평화'나 '우리 사이의 평화' 같은 말도 의미 있지만 저는 그 '평화'라는 단어를 덜어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GHOST BUNKER (장지남 작가, 2019) 장면

'평화'라는 단어를 덜어내면 이 공간이 더욱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할 거라 보시는 건가요?

어쩌면 그게 공간을 좀더 다양한 방식으로 상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평화'라는 말에 너무 갇혀있는 것은 아닐까,

왜 '평화'라는 말에 갇혀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꼭 안 된다기보다는, 다양한 주제를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워서 그렇죠. 평화문화진 지에서 평화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마당에도 녹슨 전차가 두 대 있는데 이것도 뭔가 '녹슨 평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형적인 국가 공간의 구조잖아요.

갇혀있는 평화가 아니라, '평화'라는 말에 한정되지 않고 더 열려서 나아가면 좋겠다.

주제적인 면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가 군사시설을 전용한 첫 번째 케이스잖아요. 물론 문화비축기지 같은 공간도 있지만 거긴 아무래도 이 곳과는 동선이 다르니까.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서 결국 중립적으로 '평화'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아쉬움이 좀 남네요.

개인적으로 이 공간에서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세요?

DMZ나 평화, 예술에 관련된 포럼에 패널로 종종 나가는 편인데 그때마다 이런 행사를 진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평화니 DMZ같은 개념들을 여기서 선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기억전쟁에 대한 프로젝트를 다루고 싶어요

'평화'에 갇혀있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그런 행사를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평화라는 개념에는 다양한 하위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반공 같은 개념도 저는 평화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운영 측과 이용 측에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운영 측에서는 끊임없이 이 곳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예를들면 평화 관련 포럼이나 행사 같은 것을 유치하고 적어도 서울 내에서 평화에 관련된 이미지를 평화문화진지가 선점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구축한 이미지를 이용자. 즉, 작가나 시민들은 허물어내야 한다고 봐요. 예를들자면 평화 관련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찬반의 집회가 각각 이루어지고 그러한 충돌을 작가들이 기록해서 다양한 작업으로 만들어 내는 모습이면 좋겠다는 뜻이었어요. 공간의 정체성을 운영 측에서 구축하는 것과 그 결과물을 작가나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같을필요가 없으니까요. 즉, 갇혀있지 않았으면 하는 건 이용의 문제일 테고, 행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건 운영 측에 대한 바람이에요.

그렇군요. 작가님 영화가 무척 기대됩니다. 하지만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작업이 만만치는 않 겠어요.

무서워요, 재미도 없고, 간첩으로 오해 받고.

간첩으로 오해도 받으셨어요?

그런 곳들은 작은 마을이니까 외부인이 들어오면 눈에 띄잖아요. 누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나왔어요. 자료조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왔죠, 뭐.

그런데도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작업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놀라워요.

그러게요, 저도 어쩌다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지. (웃음)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작가님 영화를 내년에 꼭 극장에서 볼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상상력을 지닌 자만이 볼 수 있는 보물

도봉구 토박이 정책특보가 전하는 평화문화진지의 숨은 뒷이야기

김낙준 정책특별보좌관

김낙준 정책특별보조관은 도봉구 지역 토박이다. 도봉구청과 노 원구청 환경공무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활동을 병행하며 지역 내에서 꾸준히 활동해왔다. 2002년 서울시 도봉구의회 의원, 201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담관 과장을 역임 하였으며, 2016년 도봉구청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평 화문화진지 초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안녕하세요? 여러 곳에서 특보님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도봉구청에서 정책특보 일을 맡고 있습니다. 구청장 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역할인데, 그 가운데서도 정책을 깊이 개 발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문화진지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난감한데요.(웃음) 저는 이 동네에 서 자랐어요. 서울시 공무원을 거쳐 도봉구의원, 도봉구 시민사 회단체 네트워크인 '도봉사람들' 대표 등 도봉구에서 줄곧 활동

해왔어요. 평화문화진지가 세워지기 전인 군인아파트가 있던 시절, 군인들이 훈련하던 모습도 보았고요. 그 일대 풍경 도 기억이 납니다. 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죠.

도봉구의원 활동을 하던 2000년도 초에 시민아파트 철거가 결정되었어요. 당시 아파트로 사용된 2층부터 4층까지는 철거하고, 1층 군사시설은 보존하는 방식으로 결의를 했죠. 군사시설은 그 자체가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전쟁의 상흔을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죠. 평화문화진지 조성에 대해서는 이때부터 직간접적으로 참여했 습니다.

줄곧 지역에서 활동하셨는데, 도봉구 토박이라고 기억이 있으신지요?

어린 시절부터 도봉구에서 자라고 성인이 되어서도 현재 평화문화진지의 오른편, 수락산이 있는 방향에는 동부간선 도로와 하천 둑방이 있지요. 하지만 예전에는 모래톱. 백사장이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아파트가 있었던 당시 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일이 그곳에서 있었는데, 중랑천이 점 점 오염이 심해지면서 낚시 금지 운동을 한창 했던 일도 기억이 납니다.

창포원은 예전에는 논이었어요. 겨울이 되면 논에 있던 물이 얼었는데, 그 물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곤 했어요. 제 또래 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공간입니다. 당시 미아삼거리역 근처에 대지극장이 있었는데, 극장 앞에서 스케이트장을 가려는 사람을 태우는 무료 셔틀버스가 있었어요. 금성관광이 운영했는데 버스를 타고 지금의 창포원으로 가면 누구나 스케 이트를 탈 수 있었죠. 사실, 평화문화진지 설립을 계획하면서 금성스케이트장을 다시 복원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 도 했어요. 2년 정도 준비했는데 결국 포기했습니다. 일단 물이 얼어야 하는데 얼지 않더라고요. 물이 얼더라도 며칠 뒤 면 금세 녹아요. 지구온난화가 정말 심해진 거죠.

시민아파트 철거를 확정하고 평화문화진지를 건립 하기까지 우역곡절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사업을 준비하다가 한차례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 하게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2012년도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담당관에서 일을 했을 때예요. 그 시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각 지역구를 돌며 민원문제를 직 접 듣고 해결책을 찾는 현장시장실을 운영했는데 도봉구에도 오셨죠. 그때 이동진 구청장이 박원순 시장에게 평화문화진지 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명했어요. 군사시설이었던 시민아파트를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박원순 시장도 흔쾌히 동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진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는 건물이 낡아서 철거 이외의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 예요. 그런데 군사보호시설은 함부로 철거를 못하잖아요. 철거를 하려면 군사보호시설 해제를 해야 하는데 그건 더 어 려운 거죠. 결국 무산되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에 정책특보로 임명되면서 다시 도봉구로 왔어요. 첫 출근하고 며칠 후였어요. 날짜가 7월 14일로 기억하는데 때마침 도봉구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간담회가 있던 날이었어요. 다함께 도봉산을 걷고 식사를 했는데, 식사자리에서 이동진구청장님이 시민아파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공간을 알고 있냐 고 물어보는데, 도봉구에 오래 거주하신 분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군사시설이기도 했고 도봉구 끝자락에 위치 해서 인적이 드문 곳이라 그랬을 거예요. 그날 다함께 지금의 평화문화진지 자리를 방문했어요. 다들 보고 나서, '보물 같은 공간이다'는 데 동의를 했죠. 물론 건물은 낡았었어요. 당장 무너질 것 같았죠. 천장은 구멍이 뚫려있었고 엄청난 쓰레기와 폐자재가 쌓여있었지만 우리들 눈에는 보물처럼 보였던 거죠. 그 자리에서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합의한 것은 이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고 만드는 과정을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하자는 거였어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 기 위해서는 많이 알려야 했고, 그 이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록한 것만 해도 43회 이니까 정확히는 50회가 훨씬 넘을 거예요. 1명이든 10명이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여주고 설명했어 요. 방문한 사람들은 모두 시민아파트에 반했어요. 눈에 보이는 지저분함이 아니라 이곳이 변했을 때의 모습을 예측하 고 상상하면서 그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었죠. 특히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유독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이면의 것 들을 읽는 일들을 하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빠져들 수밖에 없는 공간 이었습니다.

평화문화진지가 '보물 같은 공간이다.'라고 하셨습 니다. 구체적으로 평화문화진지가 가진 공간적인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봉구에서도 도봉산을 정면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 어요. 평화문화진지는 도봉산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몇 안 되 는 곳입니다. 또 군사시설이다 보니깐 일반 건물과는 다른 건축 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통로도 있고 통로 앞뒤로 전투벽과

보호벽이 있죠. 그밖에도 탱크가 들어가는 곳도 있었고요. 하나하나의 특징들이 이 공간은 너무나 다르게 보이게 했어 요. 그때 생각으로는 페인트만 다시 칠해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았어요.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건물의 변화를 이 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지금 완성된 건축물도 큰돈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시민추진단을 주축으로 현장설명회를 50회 이상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변화된 점이 있었나요?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문화진지를 알 렸고,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시민추진단이 현장설명회 를 통해 시민들의 여론을 형성했다면, 다른 쪽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서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에서 '정책 마켓'을 진행했어요. 서울시가 시민의 정책 아이 디어를 구매하고 상금을 지급한다는 개념인데 시민추진단에서 평화문화진지 건립에 대한 정책을 마켓에 제출해서 최 종 채택되었어요. 이후 서울시에서는 정책 숙의과정을 통해 최종 서울시 예산편성을 확정했습니다.

평화문화진지 건립을 처음 기획할 때 공간은 어떻게 고민하셨나요?

평화문화진지를 방문하는 사람마다 공간에 대한 기대치가 달랐 어요. 오시는 분들마다 저마다 상상을 해요. 보통 시민들은 시민 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 기대했고, 예술인은 자신의 예술장르를

바탕으로 각각의 쓰임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런 가운데 막연하게나마 예술가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이 소외되는 일들이 없도록 잘 살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술인이 입주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특보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예술가와 예술에 평화문화진지와 예술의 연결고리는 여러 배경이 있었습니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화문화진지에 예** 다. 시민아파트가 분단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었고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 는 문화예술 공간이 되길 원했어요. 그러던 차에 당시 서울

시에서는 자치구마다 예술창작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와 도봉구에는 아 직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평화문화진지가 예술인들의 창작센터 역할을 한다면 예산 편성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 을까 생각했어요. 다른 지역과 달리 공예작가를 특화해서 공예작가를 우선시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도 나왔어요.

쉬운 점이 있나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이야 처음 기획안을 떠올리면 조금 쑥스럽기도 한데요. 모든 기획안 **기들이 오고 간 것 같아요.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아** 은 진행하면서 다 수정되고 보완되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요. 알 다시피, 시민아파트에는 5개 동의 건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각 동을 '월', '화', '목', '금', '토'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했어요.

오래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월' 건물은 사무국으로, '화'는 커뮤니티 공간, '목'은 목공 작업 공간, '금'은 쇠를 다루 는 공간, '토'는 흙 작업 공간으로 꾸며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면 어떨까 했죠. '수'는 중랑천과 창포원을 상징하는것으 로 남기고자 했고요. 특히 창포원 일대는 주변을 생태공원을 만들고 환경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각 건물마다 다락방을 만들었던 계획을 이루지 못한 것인데요. 평화문화진지 인근지역은 조선시대 때 다 락원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다락원은 한자로 누원(樓院)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나랏일로 여행하는 관리들이 쉬 거나 잠을 잘 수 있던 숙박시설이었죠. 이 일대가 누원점이라는 상가가 형성되었던 곳이었어요. 그런 역사적 특성을 고 려해서 몇 개 동 2층에 다락방을 만들면 어떨까 했어요. 다락방은 작가들이 24시간 머물며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는 거죠. 일종의 레지던시인데, 설계 과정에서 2층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났어요. 아쉬웠습니다. 다락 방을 만들면 작가들이 입주하지 않는 시기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가령 평화문화진지에 세계 평화축제를 개최 하여 참여자들의 숙소로 활용할 수도 있고, '나는 난로다'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죠.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숙소로 활용하면 평화문화진지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기능도 할 수 있으니까요.

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창포원과 다락원 체육공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개관한 이후 해가 지나갈수록 평화문화진지 일대 1970년대는 아파트가 흔하지 않았어요. 도봉시민아파트도 아파 트라고는 불렸지만, 연탄을 뗐던 걸로 기억해요. 이 아파트의 철 **원을 관통하는 평화문화진지를 찾는 주민들도 점점** 거가 확정되고, 평화문화진지 설립을 계획하면서 도봉구 안에서 중요한 사업들이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진행할 때는 훨씬 넓은 관점에서 많은 가능성을 고민하며 일을 추진하

는데 여러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면서 평화문화진지 설립도 추진력을 얻게 된 거죠.

우선 창동역을 중심으로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창동역은 1911년에 세워진 10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 라 근현대사를 함께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과거에는 경원선의 주요 화물역의 역할을 하였던 곳이기도 하죠. 창동역 주변에 GTX-C노선 신설이 논의되고, 인근 약 5만㎡ 부지에 K-POP 공연을 중심으로 한 대중음악 공연시설 '서울아레 나'가 건립이 본격화되었죠.

지하철 1호선이라 불리는 경원선은 북한 강원도 원산과 이어진 철도잖아요. 지금은 끊겼지만 향후 이 철도가 복원된다 면 도봉구는 전쟁과 분단의 국가에서, 창조와 평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창포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벤치도 없고 주변이 땡볕이었어요. 요즘에는 주 민들이 산책도 자주하고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분들 많아 뿌듯합니다. 저는 창포원이 생태공원으로 거 듭나지 않으면 단순 조경에 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디어에 그쳤지만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면 어떨까하 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생태공원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창포원의 변화를 위해서 관리부서인 푸른 도시국에서 민간 위탁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공원 관리는 푸른도시국이 하고, 운영은 민간단체가 하 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울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푸른도시국에서 자체적 으로 운영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서 민간운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간단체가 운영했 다면 창포원이 생태와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를 화두에 두고 운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봉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평화문화 도봉구에서 공간을 재생하는 일은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평화 진지처럼 도봉구의 역사적 공간을 주민들과 함께 만 문화진지 이전에 역사적 장소로는 간송 전형필 선생님의 고택을 **들고 이끌기 위한 다른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원하였고, 함석헌 선생님이 사셨던 주택을 매입하여 함석헌 기념관으로 개관했으며, 둘리뮤지엄, 김수영문학관 같은 공간을

만들어 주민에게 개방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 평가받아온 도봉구에서 다양한 문화공간을 만드는 자체도 매우 의미가 있지만 더욱 소중 한 것은 주민들의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동진 청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정철학이기도 한데요. 결국 주민주체 가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러려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 필요합니다. 각 동 주민센터 내 공간을 마련하여 마을활력소를 만들었고, 도봉구청의 유휴공간에도 구민청을 만들 어 행정공간을 개방하였습니다. 이제 행정의 파트너로 주민이 등장하였습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다양 한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행정이 유연성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제도적인 지원과 민관의 신뢰구축이 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평화문화진지 운영에 대한 바람이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세요.

평화문화진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울시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인 문화예술창작센터를 유치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문화예술창작센터 운영에 대한 방침이 존재하

겠지만 향후에는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창작센터이기에 문화예술가 레지던스를 해야 만 한다는 경직된 생각에서는 벗어났으면 합니다. 숙소를 갖추지 못한 현 구조적 문제를 감안할 때 레지던스에 대한 개 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한 예술가의 기준을 넘어서 서울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하면서도 스스로가 학습과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 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공간을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식으 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아파트,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평화문화진지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평화문화진지 건립 과정에 참여한 분들을 꾸준히 만났다. 그중 다른 인터뷰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근무 기간이 짧았던 관계자들의 인터뷰는 한 꼭지로 정리해내기 어려워 아쉬웠다. 그러나 도봉에 거주했던 시민으로서 그분들의 사적 기억은 몹시 흥미롭고 기록도 없이 사라지기에는 아까워 짧게나마 정리해본다.



금성스케이트장은 겨울이면 논에 고인 물을 얼려 스케이트장으로 운영했다. 스케이트장 뒤편에 시민아파트(현 평화문화진지)의 모습이 보인다. _ 사진 제공 조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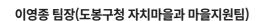
김선주 팀장(지속가능정책담당관 지속가능협치팀)

저는 어린 시절 성북구에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니까 1978년에서 1980년 즈음으로 기억해요. 시민아파트에 근처에 스케이트장이 있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금성스케이트장'이라고 불렸던 것 같아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언니들과 함께 버스 타고 갔었는데, 당시에도 서울보다는 시골 같은 느낌이 더 컸어요.

1988년 무렵에는 도봉2동주민센터에서 전입담당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때 업무 차 시민아파트에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걸어가기는 먼 거리라 자전거를 타고 한참을 갔어요. 실제로 멀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멀다는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당시만 해도 중랑천이 지금과는 다르게 둑이었어요. 둑 근처에 술 드시는 어른들이 많아서 그리로는 잘 가지 않았죠. 일이 있어도 주로 젊은 남자직원들이 갔어요. 막상 가보니 아파트라고는 하지만 요즘 아파트처럼 높지도 않은 5층 정도의 규모였어요. 속으로 '이런 곳도 아파트라고 부르나'라고 생각했죠. 복도가 어둡고 낡고 허름했던 기억이 나요. 주변은 허허벌판이었고요.

2015년 7월 문화체육과로 오면서 다시 시민아파트를 방문했어요. 오랜만에 갔는데 아파트 뒤편으로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었어요. 1동 부근에 커다란 컨테이너도 있었고요. 도봉2동주민센터에서 일하던 때는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던 때였지만, 다시 방문했을 때는 사람들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예전 모습을 찾기 힘들었어요. 아파트 입구 1층 밑바닥도 입구라고 말해줘서 알았지, 안 그랬으면 몰랐을 거예요.

예전에는 '군인아파트'와 '시민아파트'라는 단어를 혼용했는데요. 아마 거주하시는 분 중에 군인들이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연세 있는 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2004년도 주택과에서 근무할 때 시민아파트 철거업무를 담당했어요. 시민아파트와 관련된 일은 통상업무라기보다 특별업무에 해당하는 일이었죠. 철거가 결정된 후 철거업체를 선정하는 일을 맡았어요. 조달청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데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되고, 철거는 공사가 시작되면 2주 내외로 끝납니다. 큰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시민아파트를 처음 본 것은 꽤 오래 전이에요. 시민아파트는 도봉2동 관할지역인데 제가 한때 도봉2동주민센터에서 일했거든요. 당시 시민아파트는 영화에 나오는 아주 음침한 아파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가구당 집이 아주 작은 편이었고요. 그때만 해도 도봉2동 뒤쪽은 무허가 집이 많아서 아주 낙후되어 있었어요. 요즘 서원아파트 일대가당시 무허가촌이었죠. 모여있는 집은 다 번지수가 같았는데, 89번지 일대가 그랬죠. 시민아파트는 그 와중에도 다른 지역과 동떨어져 있었어요. 주변은 모두 논밭이었어요. 앞쪽에 한신아파트 하나만 있었죠.

시민아파트 소유주 90% 이상이 강남 사람들이었어요.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고, 실제 거주한 분들은 대부분 세입자였죠. 아파트가 싼 편이라 그랬는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1954_항공사진 2016_카카오맵 스카이뷰 2019_카카오맵 스카이뷰

기억수집소

이번 프로젝트는 평화문화진지의 지나간 기억을 기록하는 것만큼 현재의 시간을 기록하는 것에도 관심을 두었다. 2019년, 평화문화진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평화문화진지를 어떻게 기억할까.

<기억수집소>는 평화문화진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지금을 기록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기간 동안 '순간, 요즘, 현재'의 기억을 담는 데 목적을 두었다. <기억수집소> 부스를 통해 주어진 미션에 맞춰 시민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기억을 나눴다. 그 기억은 아주 사적인 것부터 공적인 것까지 다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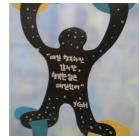
손에 손잡고

기간 | 2019.11 ~ 2019.12, 상시운영

평화문화진지를 방문한 여러분, 오늘 진지에서 느낀 기분, 생각, 찰나의 순간을 아래 종이에 여러분만의 글과 그 림으로 기록해주세요. 모은 자료는 멋진 작품으로 완성할게요!











소리 보물상자

기간 | 2019.11 ~ 2019.12, 상시운영

평화문화진지를 찾은 시민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진지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바람, 기차, 사람들의 대화 소리...

여러분이 진지에서 찾은 소리 보물을 <소리 보물 상자>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소리 보물을 듣고 떠오른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부대프로그램

기록이 현재를 만든다

2019 평화문화진지 아카이빙프로젝트는 조선시대 다락원이자 대전차방호시설, 도봉시민아파트를 거쳐 평화문화진지로 불리는 '도봉구 도봉동 7-4번지'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오픈포럼에서는 2019 아카이빙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공유하면서 평화문화진지가 시민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지 시민, 마을활동가, 예술가, 구청 관계자들에게 듣고 다른 곳의 아카이빙 사례를 들으며 프로젝트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평화문화진지의 새로운 역사는 누가, 어떻게 기록하고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사회 _ 안석희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장)

발제자 나와 평화문화진지 (도봉구 도봉동 7-4)

- _ 김은미 (시민, 마을활동가)
- _ 이남숙 (도봉구청)

평화문화진지 아카이빙에 대하여

_ 남경순 (평화문화진지 기록작가)

기억을 기록한다는 것은

_ 이은규 (<안녕, 둔촌주공아파트> 기획자)



나와 평화문화진지

_ 김은미

도봉에서 47년 살았다. '아파트'라는 것을 눈으로 본 건 도봉시민아파트가 처음이었다.

당시에는 시민아파트로 진입하려면 오솔길을 지나 걸어 들어와 했다. 논밭 한가운데로 들어왔는데, 아파트라는 게 떡하니 나타났다.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구나!' 논밭 한가운데 있는 집이니까 주민들이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바로 따다 먹으면서 자급자족하는 것도 신기하고 놀라웠다. 현재는 평화문화진지 문화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다. 평화문화진지에 대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갖고 공간을 설명하는 시간은 늘 새롭다.

_ 이남숙

행정구역은 도봉구에 있었지만, 땅주인은 국방부, 건물주인은 서울시 주민.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땅주인과 국방부의 협의.

서울시 문화정책과와 협력해 2015년 도봉구 관계자들과 시민활동가의 보고를 개최한 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

2016년 4월 마침내 주독일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으로부터 '베를린 장벽 무상기증 가능' 통보 문서.

공무원이었기에 행정업무가 가능했고, 행정절차를 지켜야 해서 어려움이 많았다.

대전차방호시설이 평화문화진지로 탄생하기까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며, 이곳은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있는 장소이다.

평화문화진지 아카이빙에 대하여

_ 남경순

다락원, 대전차방호시설, 시민아파트, 평화문화진지.

이곳과 관련된 수많은 공적 사적 기록(기억)들을 발견해가는 일은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읽도록 해준다.

어느 나그네의 하룻밤 거처, 군사시설, 일상의 공간.

자,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해볼까?



기억을 기록한다는 것은

_ 이인규

사라지는 나의 고향, 둔촌주공아파트에 관한 기록.

1970년 첫 입주를 시작한 둔촌주공아파트는 내가 태어나 17년간 자란 고향이다.

10여년 전 재건축 계획이 흘러나오다 확정되었다. 나는 하남으로 이사 왔지만, 이모가 한동안 그곳에 살았다.

그 재건축 소식에 다시는 그곳에 못 갈 것 같았다.

일본 대지진 이후 구글재팬이 <미래의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기록을 모은 운동이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나도 사람들의 잃어버린 기억을 보존하고 기록하겠다고 결심했다.

넋 놓고 있다가는 둔촌주공아파트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 같아 사진으로 기록하고, 책으로 만들었다. 2013년 첫 권을 시작하여 6년간 시리즈 4권과 사진집까지 5권으로 출간되었다.

책은 흘러가는 정리라기보다 기억 프로젝트를 단락하는 책이다.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슬프다. 어차피 결국 다 사라지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를 수없이 자문했다.







평화문화진지의



― 생각

- _ 우리가 함께 남긴 기록과 기억
- _ 전쟁과 분단에서 평화와 문화로!
- _ 협치도봉에서 전하는 평화문화진지에 대한 바람
- _ 2019 평화문화진지 아카이빙프로젝트를 돌아보다





















얼마 전까지 '둔촌 주공아파트'라는 곳이 있었다. 서울의 동쪽 끝 넓은 땅 위에 1979년에서 1980년 사이 지어진 이 아파트는 무려 5,930세대에 이르는 대단지였다. 지금처럼 30층을 넘는 초고층 아파트로 짓는다면 몇 동만으로도 6천 세대를 금방 만들어 낼 수 있겠지만, 5층과 10층으로 지어진 나지막한 아파트로 그 많은 세대를 지으려니 145개의 동이 필요했다. 그렇다고 그곳에 건물만 바글바글 모여 있는 것은 아니었다. 건물이 들어선 땅 보다도 더 넓은 잔디밭과 언덕이 아파트 사이사이 펼쳐졌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 수만 그루의 수목이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만들어 내는 곳이었다. 봄이면 잔디밭에 쪼그리고 앉아 쑥을 뜯고, 가을이면 은행, 밤, 모과도 딸 수 있었다. 아파트 앞에 놓인 의자나 놀이터 벤치에는 동네 할머니들이 나와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고, 구불구불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 걷다보면 숲속을 걷는 느낌이 났다. 동네는 여유롭고 평온했다.

그곳에서 나는 태어나고 자랐다. 어렸을 때부터 그곳을 참 좋아했던 나는 그곳을 떠나게 될 때마다 향수병을 앓았다. 스무살 무렵부터 둔촌주공아파트가 재건축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서른 살이 되었을 땐 이미 재건축의 여러 단계를 넘어선 상황이었다. 재건축으로 이곳이 사라지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고,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아파트를 돌보던 손길을 놓았고, 아파트는 점점 더 늙어갔다. 예정된 이별을 받아들여야 했다. 아쉬운 마음에 시간이 날때마다 찾아가 사진을 찍고 블로그에 올리며 아쉬운 마음을 글로적곤했다.

그러던 어느날 구글재팬에서 진행한 <미래에의 기억>이라는 프로젝트를 접하게 되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폐허가 된지역의 풍경과 삶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모아 지역 주민들의 잃어버린 과거와 기억을 복원해주는 프로젝트였다. 깐느 광고제에서 상을 받은 덕분에 한국에 있던 나에게도 전해진 것이었다. 그 프로젝트를 보면서 둔촌을 기록하는 방식을 고민하기시작했다. 일본은 자연재해로 갑작스럽게 상실을 겪었으니 복원밖에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는 재건축이라는 '인재'가 이미예정되어 있으니 이를 미리 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곳에 함께 살던 많은 이들이 겪게 될 '공동의 상실'이니, 혼자가 아니라 '함께'이 사라질 공간을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들과 나누기위해 <안녕, 둔촌주공아파트>라는 작고 얇은 책을 한 권만들고, 같은 이름으로 SNS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나의 고향이고, 나는 이곳을 좋아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자 이에 공감해주는 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각자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동네사랑을 쏟아냈다. 그동안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눌 자리가 없었을 뿐, 사실 많은 이들이 이 동네와 함께한 각자의 추억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다. 아파트를 '고향'으로 만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가족과 삶을 꾸려 나갔던 부모님 세대에게도 수많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제2의 고향'이었다. 세대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고, 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작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후의 작업과 활동을 기획했다. 재건축보다 앞서 철거된 놀이터를 함께 모여 기리기도 했고, 누군가의 집에 찾아가 그들의 집과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도 했다. 재건축이한 단계씩 다가올 때마다 아쉬운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다. 수년이 지나고 돌아보니 처음에 바랐던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만들어 가는 기록'이 몇 권의 책과 SNS의 기록

아파트를 고향이라 이야기하는 우리를 신기하게 생각하던 어르신들도 전쟁부터 댐 건설 등 수많은 이유로 고향을 떠나고 잃어버린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우리의 활동을 지지해주셨다. 그리고 참 많은 분들이 "그래도 둔촌주공아파트는 사람들에게 참고마울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건넸다. 자신도 살았던 집을 떠나며 많이 아쉽고 슬펐다고, 그 상실감을 홀로 삭일수밖에 없었는데, <안녕, 둔촌주공아파트>를 보며 위로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리고 보면 수많은 이유로 삶의 터전에서 뿌리 뽑혀 온 것이 우리들의 역사였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늘 뒷전으로 밀려왔던 것이다.

으로 쌓여있었다.

이제 둔촌주공아파트는 모두 사라졌지만, 우리가 남긴 기록과 함께 기리며 나눈 시간들이 서로를 위로해주었던 기억은 남았 다. 둔촌주공아파트의 사라짐은 여전히 아쉽지만, 그것이 슬픔 으로만 남지 않아 다행이다. 오랜 시간 의지하며 친하게 지낸 공간과의 깊은 관계는 그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이 되어준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기억이 모여 그 공간을 좋게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 둔촌주공아파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 들어설 아파트 단지에는 둔촌주공을 떠올릴 수 있는 특별한 조경 환경 이 꾸려지고, '둔촌주공 기념관'이 생겨날 것이다. 2022년에나 진행될 일이라 아직 미정이지만 구청과 조합에서 공표한 일들 이 있으니 그저 희망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남 겨지는 기억은 이전에 그곳에 살았던 이들에게만 의미 있는 공 간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곳에서 새롭게 삶을 꾸려나갈 이 들에게 '이곳은 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던 좋은 삶터였고, 앞 으로 당신들에게도 그러한 삶의 터전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 지로 전해지기를 바란다. 우리의 기록이 새로운 현재로 이어지 길 기대한다.



전쟁과 분단에서 평화와 문화로!



전)시민추진단대표 최소영

70년대 북한군에 의한 대 전차 방어를 위해 늠름히 서울의 관문을 지키고 있었던 대전차방호시설은 2004년 안전 상 일부 철거 후 10여 년간을 공사용 펜스로 갇힌 채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잃었던 곳! 2014년 7월 그 존재가 사람들 앞에 세상에 열리던 첫 재회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벅참이 생생합니다. 그 설렘과 벅참은 변화의 의지가 되어 현장에서 '시민추진단' 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민추진단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활동력과 실행력을 갖춘주민들,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활동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왔던 협업의 경험, 거기에 시민들과 함께문제를 해결해 나가기위한 행정의 결합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차방호시설은 상호협력의 결과입니다. 시민추진단은 다소 열린 구조로 환경, 교육, 생태, 건축, 문화예술 등 각분야별 전문가 및 관심 있는 주민들이 모이고 흩어지며 현장 방문, 전문가 자문, 워크숍, 파일럿 행사 등 50여 차례 현장을 오가는 동안 공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또한 가능한 활동범위 내에서 서로의 재능을 공유하며 공간을 재탄생시키기 위해 많은 아이디어들을 모아냈습니다. 아이디어를 실행할 예산 마련을 위해 시민시장실을 열고 시민정책박람회를 통해 서울시 예산 26억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통해 비로소 대전차방호시설 재생사업 진행이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시민활동의 바통을 이어 행정 실행 단계를 통해 오늘의 평화문화진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평화문화진지는 장소성과 역사성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아직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의 국가임을 대전차방호시설 재생 과정에서 절감해야 했습니다. 대전차방호시설은 국방부 소유권 건축물이라 재생의 과정에 여러 제제사항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사용을 허하되, 유사시 즉 전쟁 발발시에는 언제든 군사시설로 돌이킬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건물 내 새롭게 붙박이 형태의 시설물 설치는 금지시켰습니다. 대신 유사시 야간 관측을 위한 관제탑 신설을 요구했지요. 하지만 우리는 만일의 전쟁을 대비하는 것과 동시에 분단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상징하는 '베를린 장벽'도 유치해 이 공간에서 평화를 품고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주민들의 다소 엉뚱기발한 상상과 도전의식에 행정 담당공무원은 응답해주었고, 곧 통일부, 외교부와 연계해 무상으로 '베를린 장벽'을 기증 받게 되었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이루는 기적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평화문화진지는 지역의 힘입니다. 2014년 대전차방호시설 공간재생을 위해 첫 활동을 시작하고 2017년 착공식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하고 긴 노력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활동을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지해준 자치구, 행정적 차원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은 이 모든 활동의 바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 없이 예산 중심의 건물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랬다면 아마 지금의 진지에서 드러나는 표현방식과 전달되는 감흥은 사뭇달라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화예술인은 물론 시민들의 가슴까지 설레게 하는 평화문화진지에 관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진지는 민관군이함께 피어낸 '거버넌스의 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민, 지역, 행정, 전문가, 군부대 등 각자의 역할로함께 협업하며 넘어야할 큰 산들을함께 해왔던 모든 분들께 이 장을 빌어 깊고 무한한 애정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 평화문화진지의 매력적인 겉모습을 마주하기 전, 과거 위장술의 하나였던 시민아파트 -부분 철거 후 10년의 침묵- 공간 깨우기를 위해함께한 사람들의 노력을 이해하게 된다면 평화문화진지를 더욱 오롯이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제 평화문화진지가 전쟁에 의한 북한군의 대전차 진입로가 아닌 서울의 문화 관문으로서, 더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과 참여로, 문화로 도시를 지키는 평화문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평화문화진지에 대한 바람

협치도봉 이용은 국장

평화문화진지, 상징을 넘어서 누림의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던 닫힌 공간이 창포원 친환경 도시텃밭으로 열리기 시작했던 어느 가을 날, 지금의 체육공원이 있는 너른 들로 김장배추를 수확하러 갔던 기억이 아련합니다.

전쟁의 공포로 인해 생겨났던 대전차방호시설을 주민의 일상공간으로 되돌리자는 목소리가 우리들 안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임박한 평화의 시대를 상상하게 해주는 듯했어요.

평화문화진지라는 이름으로 해질녘 석양이 비치는 도봉산 병풍 시야를 확보한 것 자체가 오늘과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협치도봉 김동현 조정관

70년대 후반 군인아파트 옆 금성스케이트장에서 놀던 추억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파트는 사라지고 버려진 폐기물만 쌓여 안타까웠던 공간이 이제는 도봉구의 관문으로, 평화와 문화가 융합된 평화문화진지로 탈바꿈해 뿌듯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평화문화진지가 이제 도봉구민들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협치도봉 김선주 팀장

30년 전, 자전거를 타고 한참 달리다 보면 도봉 끝자락에 낯선 시민아파트가 나타났습니다.

20년이 지나 다시 찾은 그곳은 무너진 건축자재와 컨테이너박스, 쓰레기가 쌓여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10년 후, 황폐하던 그곳은 모든 이를 반겨주는 '평화문화진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희망을 주며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박수진

어느 날, 평소 즐겨 찾던 창포원 옆에 평화문화진지가 생겼다고 해서 가족과 함께 방문했다가 생각보다 한산하고 닫힌 공간에 궁금증과 아쉬움을 안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후 협치평화문화진지포럼 관련자로 2년간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고, 첫해의 불만스럽던 점들이 2년 차 포럼이 마무리될 무렵에는 차츰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서 평화문화진지가 입주작가들과의 만남, 아카이빙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들을 망라하며 공간을 더욱 활성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문화진지가 북적이는 모습을 상상하며 앞으로 더 큰 기대를 걸어 봅니다.

협치도봉 김민성 지원관

도봉구에 거주한 지 15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평화문화진지를 만났습니다.

전쟁이라는 아픔의 역사로부터 문화와 창조의 공간으로 이어지기까지, 그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다가 왔고. 공간이 주는 오묘한 매력에 이곳저곳을 지긋이 바라보았죠.

이곳을 통해 가까이 있지만 눈여겨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이 서린 역사를 넘어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는 평화문화진지가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서 숨쉬어주기를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협치도봉 김태경 지원관

협치평화문화진지포럼의 협치지원관으로 마주한 평화문화진지는 첫인상이 다소 엄숙하며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여 평화문화진지를 방문하는 동안 철골과 시멘트의 차가움, 분단의 상징인 회색빛 엄숙함 위에서도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온기가 이곳을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며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시간의 흔적과 역사적 의미를 덧입고 현재를 공유하는 꿈틀거림의 공간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사람'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해봅니다.

협치도봉 양지숙지원관

평화문화진지는 늘 멀게 느껴지고 문을 두드리기 어려운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 나누면서 저 스스로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다른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 서로 만나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이 평화문화진지입니다. 모두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문화진지 안세용

공간의 힘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전쟁을 위해 존재하던 곳을 평화롭게 문화를 즐기고 생산하는 공간으로 만든 힘.

그 힘으로 평화문화진지는 더욱 아름답고 평화로운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평화의 안식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문화진지 이율빈

세 번의 겨울을 평화문화진지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며 느낀 것은 공간이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공공이 잘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을 잘 나누고, 아직 조금은 느긋하게 평화

문화진지를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평화문화진지라는 이름이 주는 무거움은 여전하지만, 둥글게 다듬어지고 있는 공간의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새롭습니다. 이 공간이 말랑해지도록 1년 동안 이야기를 만들어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평화문화진지 김지하

'내 기억 속의 평화문화진지'에 대해 짧게나마 써보려 하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이 마냥 허우룩해지기도 했고, 그 마음을 글로 풀어낼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아직은 무언가로 정의하기 어려운 평화문화진지와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제 삶에서 의미 있는 아카이빙 될수 있도록 하루하루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2019 평화문화진지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돌아보다

안석희

협치도봉 평화문화진지포럼위원, 2018 <플레이 플레이 피스> PM

아카이빙에 대한 이슈는 처음 평화문화진지가 문을 열었을 때부터 있었다. 대전차방호시설이라는 공간의 역사성과 협치를 통한 재생의 스토리가 남달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입주작가 스튜디오라는 공간의 특성상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평화문화진지 상설·기획 전시의 이름이 APT(Archive art ProjecT)가 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협치도봉회의가 평화문화진지를 협치 의제로 주목했던 것은 이 공간이 민관군이라는 좀처럼 만나기 쉽지 않은 세 주체의 협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도봉의 시민사회와 도봉구청은 시민아파트가 철거된 후 방치된 이 공간에 주목했고, 서울시와 군부대를 설득해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롭게 탄생시켰다. 그야말로 협치의 상징 같은 이 공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잘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2018년, 처음 평화문화진지가 협치 의제로 선정되었을 때 준비했던 것은 <플레이 플레이 피스>라는 이름으로 주민주체를 모으고 연결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이었다. 내 몸을 악기처럼 두드려 리듬을 만드는 소통의 놀이예술 '바디퍼커션'과 우리의 풍물과 같은 브라질 전통 타악기의 모둠 '바투카다'를 도봉에 새롭게 소개하고, 이를 매개로 만난 주민들이 평화문화진지에 깃들어 독특한 활력을 만들어내면 어떨까 상상해보았다. 더불어 새로 탄생한 공간에는 아이들의 웃음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 '놀이대장'이라는 어린이 놀이프로그램도 한데 묶었다.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플레이 플레이 피스>는 입주작가들의 창작-전시 활동,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터 같은 주요 프로젝트와 더불어 평화문화진지 공간의 특성을 잘 활용한 보조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한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의 <플레이 플레이 피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올해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이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가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입주작가 전시 프로젝트와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공간의 이야기를 다루긴 했지만 평화문화진지의 정체성과 연결된 통합적인 아카이빙의 요구는 항상 있었고, 공간과 연결된 다른 파트너들과 평화문화진지를 향유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옅어져가는 기억들을 수집하고 '지금 여기'를 오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이 공간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필수적이라고 다들 어렴풋이나마 인식했기 때문인 것 같다.

2018 <플레이 플레이 피스> 프로젝트의 눈과 귀가 되어 사진과 영상 기록을 맡았던 남경순 작가의 제안에서 시작된 <2019 평화문화진지 아카이빙 프로젝트>는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 되었다. 하나는 이 공간의 옛 이야기로 조선시대 다락원의 역 사, 전쟁의 상흔과 대전차 방호시설의 건설, 이 군사시설을 위장하기 위한 시민아파트의 증축, 시민아파트 철거 후 버려진 공간을 민관군의 협치로 새롭게 되살려낸 과거의 이야기, 다른 한 축으로는 현재 새롭게 만들어진 이 공간을 향유하며 공간의 주체로 초대받은 작가들과 주민들, 협력 파트너들의 목소리가 담아내고자 한 것이다. 과거와 현재 두 방향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당연히 쉽지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오래된 자료들을 뒤져 관련 자료를 찾는 일은 넓은 해변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느낌이었을 테고, 옛 기억을 가진 분들을 찾는 것도 번번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장벽을 마주쳤을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이 자료를 드러낼 지 결정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으리라 짐작한다. '반드시 목소리를 담아야할 사람이 과연 누구고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과 더불어 그 목소리를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것인가의 과제도 함께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다행히 이 공간과 연관된 기억을 가진 분들을 알음알음 찾아 인터뷰를 통해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었고, 현재 평화문화진지를 오가는 시민들의 이야기는 <기억수집소>라는 참여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했다. 이 아카이빙을 주제로 한 전시의 오픈포럼 <기록이 현재를 만든다>에는 이 공간에서 작업했던 입주작가, 진지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주민, 이 공간을 여는 데직간접 관여하신 분들, 이전에 다른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경험해본 작가를 초대했다. 이 오픈포럼은 평화문화진지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아카이빙 작업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프로젝트를 통해 만난 주민들의 기억은 평화문화진지라는 공간에서 각자가 살아온 시간과 삶에 대한 서술로 확장되면서,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이들의 삶을 선명하고 풍요롭게보여주었다. 새롭게 이 진지를 오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긴 것 또한 다양한 바람이 기록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있다.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앞두고 몇 가지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문화진지 아카이빙의 지속성이다. 꼭 이번 프로젝트와 같은 형태는 아니어도 좋을 것이다. 이 공간에 담긴 기억과 기억을 가진 주민들을 찾아 이야기를 듣는일, 이 기억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기획들이 필요하다. 올해로 협치 의제가 종료되면 향후 어떻게 이 활동을 이어갈 것인지 평화문화진지와 도봉문화재단의 사려 깊은 방책이 필요할 것이다. 전시나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넓게 모색해본 이번 프로젝트와는 달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아카이빙의 방향성을 만드는 것도 요구된다. 주민들의 인터뷰로 발굴된 이야기는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던, 이 지역에서 살아온 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드러내주었는데 이러한 발굴을 조금 더 깊고 넓게 끌고 가는 것, 이러한 이야기와 작가들의 작업을 긴밀하게 연결하는일, 과거의 기록들을 보다 다양하게 뒤져보고 새로운 매체를 통한 창작 작업으로 이어가는일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아카이빙은 단순하게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이나 기록이 아니다.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지나간 삶이 복원되고, 지금 여기모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스며들어 삶의 또 다른 힘이 되어주는, 다층적이고 유기적이며 상호연결적인 작업이다. 이런접근은 현재의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 인근 주민들과 다양하게 오가는 시민들, 입주작가들과 외부의 협력파트너들, 재단과 진지의 담당자들과 지역시민사회 등 밀접하게 관여된 주체들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이해와 요구를 받아들이고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작가들의 공간을 더 오픈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민원만큼이나 입주작가 개개인의 창작 방식이나 태도도 존중받아야 하고, 도봉문화재단이나 평화문화진지 운영진이 생각하는 운영의 방향과 더불어이 공간의 역사 속에서 인연을 맺은 여러 파트너들의 의견도 한 번쯤은 고려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상호존중이 쌓이고 갈등 조정의 지난한 과정을 통해 비로소 '평화-문화'라는 거대한 이슈가 장소성에서 비롯된 무거운 이름이 아니라 우리 손에 닿는 실재이자 서로를 끌어당기는 실질적인 힘이 될 것이다. '평화-문화'가 이 공간의 진정한 무늬가 된다면 이곳에 접속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단순히 오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힘이 향기처럼 번져나갈 것이다. 장소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넘어 추상적인 평화에 대한 성마른 주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평화-문화'가 느껴질 때, 이곳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가 깃들고 그것을 안전하게 키워가는 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이 재생의 공간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공간은 풍성한 이야기를 품은 오랜 나무처럼 우리 곁에 남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물심양면 지지해주신 협치도봉회의, 도봉문화재단과 도봉구청, 평화문화진지 운영진과 입주작가 여러분들, <플레이 플레이 피스> 프로젝트로 만난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주민들,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실행하며 전시까지 참여해준 남경순 작가, 전시로 평화문화진지의 재발견과 재구성에 참여해준 정혜령, 오제성, 김진 작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 책을 기획·편집해준 김수진 작가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무엇보다 두 해에 걸쳐 <플레이 플레이 피스>의 실무를 담당해준 평화문화진지 이율빈 씨의 수고로움이 좋은 결과로 남기를 바란다.

평화문화진지

1) 시설 및 사업 개요 | 1. 시설개요

가. 시 설 명 _ 대전차 방호시설 도봉예술창작공간

위 치 _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5일대

시설규모 _ 연면적1,877.84㎡ (지상1층, 5개동)

1) 부지면적 5,478㎡, 건축면적 1,846,56㎡, 연면적 1,877.84㎡

2) 예술창작공간 1.785㎡ + 전망대 92㎡ = 1.877㎡

2) 공간 조성 현황

□ 나. (기본개념) 공간은 예술창작공간과 군사시설이 함께하며, 총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동의 일부는 도로신설로 인해 철거되었음. 군시설 공간은 크게 전차 방호공간과 병사 이동통 로 및 방호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 5개의 각각의 공간은 크기와 위치는 다르나 공통적으로 중심에 중정¹⁾을 가지고 있으며, 넓은 공간의 대전차 출입 공간, 5개 동이 연결되는 복도 공간, 신설되는 예술창작공간으로 구성되 어 있음

3) 대전차방호시설 추진 과정 1 2. 대전차방호시설 변천과정

- 가. 도봉구 대전차 방호시설은 6.25 전쟁 당시에 북에서 서울로 오는 이동 경로상에 지 어진 군사시설로, 1층은 방호시설, 2, 3, 4층에는 5개동의 아파트를 세워 군인들이 거주하고, 유사시에는 1층으로 내려와 방어선을 구축 할 수 있도록 1970년에 준공 되었음
- 나. 대전차방호시설을 중심으로 도봉산 중턱까지 이어지는 대전차방벽이 지하로 설치 되어 있으며, 이는 유사시 국군의 작전통로 및 적의 진입을 막는 군사시설로 설치되 어 있음
- 다. 도봉 시민아파트가 완공 35년 후인 2004년에 노후화로 인해 위험건축물 판정을 받 고 철거 된 이후, 대전차방호시설의 존치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역에서 제기되었으 며, 군사시설로서의 의미와 전쟁이후 건설된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검토하여 존치하 는 것으로 결정됨
- 라. 대전차 방호시설은 유사시 군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존치되었지만 노후로 인한 위 험성으로 군 작전훈련에서도 제외된 상태로 방치되어왔음
- 마. 도봉구청 가로정비과, 하천과 등에서 창고 및 적치장으로 사용되면서 불결하고 위 험한 공간이 되었으며, 민선5기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취임 이후 노후 불량 군사시 설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도봉구의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과 함 께 '전쟁과 분단' 의 상징인 대전차방호시설을 '평화와 문화' 의 상징 공간으로서의 도시재생을 시작하게 됨

- 7 민간과 행정의 협력을 통한 공간 재생
- 12 서울시, 도봉구청, 60보병사단 리모델링을 위한 협약 체결

- 7 서울특별시와 (재)도봉문화재단 위·수탁 협약 체결
- 10 평화문화진지 입주작가 14명(팀) 선정 및 입주완료
- 10 평화문화진지 개관식 및 평화통일 콘서트 개최

- 9_ 평화문화진지 입주작가 8명(팀) 선정 및 입주완료
- **10**_ 개관 1주년 기념행사 다락다락 개최

2019

- 7 서울시 위수탁 계약 연장, 2차 협약 추진(2020.12.31.까지)
- 9 평화문화진지 입주작가 7명(팀) 선정 및 입주완료
- 11 개관 2주년 기념행사 개최

대전차방호시설과 평화문화진지

조선시대 다락원 여행하는 관리들의 공공숙박시설

대전차방호시설 6. 25 전쟁 시작 후, 북한군이 탱크로 남침하던 곳으로 1970년

북한군의 재침에 대비해 군사적 목적으로 조성

- **도봉구 최초의 시민아파트** 2층에서 4층으로 구성된 시민아파트 건립
 - 2004년 안전진단 E등급을 받고 노후화로 철거

- 평화문화진지 2014년 7월 민간과 행정 협력을 통해 공간 재생
 - 2016년 12월 서울시, 도봉구청, 60보병사단 리모델링을 위한 협약 체결
 - 2017년 10월 개관